APR 3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09 1982년 4월28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April 28,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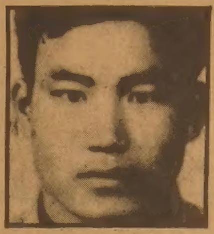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여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 만취순경 주민무차별 학살
# 사망 60, 부상 35
## 수류탄·칼빈총난사, 범인자폭

(서울본사전화)술에 만취된 순경이 내연의 처와 말다툼끝에 지서 무기고에 보관중인 수류탄과 칼빈총 실탄들을 꺼내 주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해 6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26일밤 9시30분쯤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경찰서 궁유지서에 근무하는 우범권(27)순경은 술에 만취, 지서 무기고에서 칼빈총 2정, 실탄 280발, 수류탄 7개를 꺼내 근처 우체국안과 장터로 뛰어나가 수류탄 2개를 터뜨리고 칼빈총을 난사했다.

이 사고로 궁유우체국교환양 정은수(21)양등 우체국직원을 포함한 60명이 숨지고 전미수(20)군등 3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우범권 순경.

사망자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순경은 지서 근처의 집에서 내연의 처 전말순(27)씨와 싸운 끝에 지서로 돌아와 발작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순경은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해 27일 상오 5시 30분경 궁유면 평촌리 서인수(68)씨 집에 침입, 수류탄을 터트려 서씨 일가족 2명과 함께 자폭했다.

한편 서정화 내무장관은 27일 이 사건에 대한 인책사임을 표명했다.

전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수습대책을 지시하는 한편 김준성 부총리를 현지로 파견했다.

우순경은 1980년 12월 부산경찰국에서 순경근무를 시작, 서울근무를 거쳐 작년 12월 의령경찰서로 전근했다.

경남 의령은 부산에서 서쪽으로 약 96Km지점, 남해안에서 80Km 북방에 위치해 있다.

◆조지·부쉬 미부통령과 회담하는 전대통령.

## 부시부통령, 전대통령과 회담
## 미국, 한반도 방위지원 다짐

(서울26일=연합)전두환 대통령은 26일 조지·부쉬 미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 안정에 관해 논의했다.

집권이후 최고위 미국관리를 맞은 전대통령은 50분간의 회담에서 부쉬부통령으로부터 지난1월 발표된 한국통일방안에 대한미국측의 강력한 지지를 다짐받았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유창순국무총리, 노신영외무장관, 유병현 주미대사, 미국측에서는 리차드·워커 주한대사, 대니엘·머피수석보좌관, 존·홀드리지 동아시아및 태평양담당 차관보등이 배석했다.

부쉬부통령은 25일아침 김포공항도착이후 국립묘지참배, 한미합동사령부 등지를 방문했고 이날밤 신라호텔에서 있은 만찬회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의 변함없는 우의를 다짐했었다.

부쉬부통령은 26일 다음 기착지인 말레지아로 향했다.

### ◇본사동정◇

김명규 본보 발행인은 본국의 사단법인 한국언론연구원이 마련하는 해외언론인 세미나및 보국산업·국방시설 시찰차 27일 서울로 향했다.

김 발행인은 오는 5월12일 토론토로 귀임할 예정이다.

### 카톨릭회관건립기금 $40만 돌파

토론토한인성당의 회관건립기금 접수액은 모금시작 1년반만에 40만달러를 돌파했다.

즉 지난 25일 현재 현금접수 33만6천350달러93센트, 약정에 7만8천266달러22센트, 합계 41만4천617달러15센트에 달했다.

인터뷰

## 불란서요리·여행 즐기는 함승희양
##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남자가 좋아"
### 군것질 안하면서, 스키·수영등이 미의지름길

"1년후에 결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예요. 인터뷰할때 엉겁결에 나온 얘기예요"면서 아직"약속한 남자"는 없다고 부인하는 미스·캐나다「진」 함승희양.

오는 5월이 생일이라 아직 만22세인 함양은 캐나다 최고의 한국인미녀라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답지않게 차분하다.

5월15일 서울 본선출전을 앞두고 준비에 바쁜함양은 26일 어머니 이채은 여사와 함께 본사를 예방했다.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고 의상학을 공부 자신을 가꿀줄도 안다"는 것이 어머니의 딸 자랑이고, "멋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라는 것이 함양의 자기 PR이다.

72년 선일여중1년때 이민, 고등학교를 거쳐 세리단·칼레지에서 의상학을 공부한 함양은 78년9월 파리로 떠나 Chambre Syndicale De La Hante Couture Parisienne 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했다.

현재 블루어와 영의 고급백화점 홀트·렌프루내의 구찌·부티(Gucci Boutique)에서 어씨스턴트·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함양은 시간나는대로 자신이 디자인한 작품들로 패션쇼를 가질것도 구상중이다. 세련되고 고상한 분위기와 걸맞게 취미로 여행, 스쿠버다이빙, 방안 가꾸기등도 즐거한다고 하는 함양은 장래 남편은 골동품수집을 못도와주더라도 자기감정을 표현할줄아는 멋있는 남자면 조건없이 결혼하겠다고.

어머니 이채은여사는 '우리애들은 비교적 부모말을 잘 듣는 편이예요. 부모에게 소개 시킨후 허락을 받고서 교제하도록 아버지(함의현씨 올림픽 준비위원장)가 얘기하시지요'라고 덧붙인다.

승희양은 한국말은 물론 영어, 불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몸매를 가꾸기 위해 스키, 수영, 테니스등 운동을 즐긴다. 군것질을 안하는 승희양은 가리지않고 자주 먹으며 불란서요리를 좋아한다고.

Without fear
or
favor
—The Korea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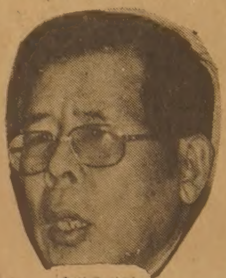
### —보 충—

82년4월27일자 본지 2면 김남수씨 외환은행불루어지점장에 기사중 편집실수로 빠진 부분을 오늘 게재합니다.

20만달러를 들여 컴퓨터시설을 구입한 외환은행은 불루아지점개설와 함께 컴퓨터온라인시스템을 가동한다.

◆김남수 신임 지점장

## 교포방청기회 두번
## 김수환추기경 토론토강연



◆김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의 방문을 앞두고 5월2일(일) 하오6시 [illegible] 예약을 접수중인 토론토한인천주교회는 지난 25일 예정된 300명의 예약이 다 차서 예약을 더 받지 않기로 했다.

[illegible] 4월29일(목) 하오7시30분 세인·폴성당에서 열리는 김추기경 강연회및 5월2일(일) 하오1시 [illegible] 성당에서 올려지는 김추기경 집전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

28일(수) 도착하는 김추기경은 29일 상오11시 토론토대교구장 카터 추기경을 방문, 30일(금)하오8시 [illegible](쎄인폴성당), 5월1일(토) 상오 총영사관 [illegible]에 참석한다. 낮 [illegible] 하오3시 새 회관(딕다스 [illegible]) 축성식은 2천5백명 신자만 참석, 외부인사들의 축성식 참가는 사절하고, 6월중 교민상대의 오픈·하우스를 따로 갖기로 하였다.

김추기경 체류중 일체의 연락은 고종옥신부(토론토한인천주교회 주임)가 담당한다.

### 社告
### —판매가격 인상건—

본사는 5월3일자 신문부터 식품점에서 판매되는 한국일보 소매가격을 종전 30센트에서 40센트로 인상합니다.

독자께서는 제반 경비인상으로 이같은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시고 계속 많이 애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사는 당일 발행된 다음날 날자신문을 매일 각 식품점(미사사가 지역은 주3일)에 배달 합니다.

소매가격은 올랐지만 정기 구독료는 종전과 같은 월9달러, 연99달러, 영구구독500달러(독자가 원하는 때까지 발송함)입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오늘의 예금금리 (4월23일 부터)

| 종 별 | 기 간 | 신 용 조 합 | 일 반 은 행 |
|---|---|---|---|
| 정기예금 | 30일 | 14.5% | 13~13.5% |
| | 90일 | 15.25% | 13.75~14.5% |
| | 180일 | 15.5% | 13.75~14.75% |
| | 365일 | 15.75% | 14.75~15.25% |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부 동 산

1) Business를 살때는 Lease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 경기가 나쁠때는 먹는 장사가 좋겠읍니다.
3) 먹는 장사중에서도 Donuts Business가 좋겠읍니다.
4) 왜냐하면 첫째, Lease가 길고, 손님을 직접 대할 필요가 없고 또 수입이 좋으니까요.
5) 24시간 영업시간을 두려워마십시요.
Grocery Business의 영업시간과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주식회사 이훈모부동산
225-1204, 222-7863

## 광고요원 모집

업무량의 격증에 따라 본사 광고요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의 응모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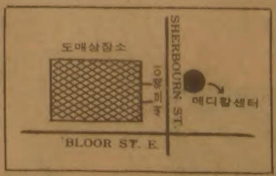
◎모집인원 : 약간명 (Full or Part time)
◎자 격 : 영주권을 지닌 한인교포로서 광고업무와 경리업무에 흥미있으신 분.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1통
◎응모마감 : 1982년 4월30일

※응모희망자는 직접 내사바라며, 광고업무에 따른 보수등은 본인과 협의하여 결정함.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 : 533-2361 광고국장

한국인의
꽃·화초
도(소)매상

◎토론토 제1의최대규모
◎가장 저렴한 가격




☎ : 923-9948

## 씨름협회 발기및총회

금번 본 동호인들은 우리의 고유한 민족스포츠인 씨름을 애호하며 지금까지 몇 번 산발적인 대회를 가져오던중 뜻있는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기및 총회를 가짐과동시에 캐나다체육회 산하단체로써 정식가입함으로써우리민족특유의 이스포츠를 육성·발전시키려고 하오니, 취미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참석을 바랍니다.앞으로 정기마다 대회를 가질 계정입니다.

때 : 1982년 5월1일(토) 오후2시
장 소 : 한국관(628 BLOOR ST. W.)
연락처 : 석종윤 (537-5952)
최용근 (691-7478)
발기인 : 김연수, 김연태, 최용호, 윤종욱, 강신용, 석종윤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스탠리 컵

## 쾌벡, 뱅쿠버 준결진출

# 팀 · 캐나다 소련에 연패

캐나다는 24일과 25일 핀·랜드 헬싱키에서 열린 소련과의 하키전쟁에서 4:3, 6:4로 연속 깨졌다.

그러나 캐나다의 NHL기대주인 쾌백이 보스톤을 2:1로 뉴욕·아일랜더즈와 함께 웨일즈·컨퍼런스 결승 진출이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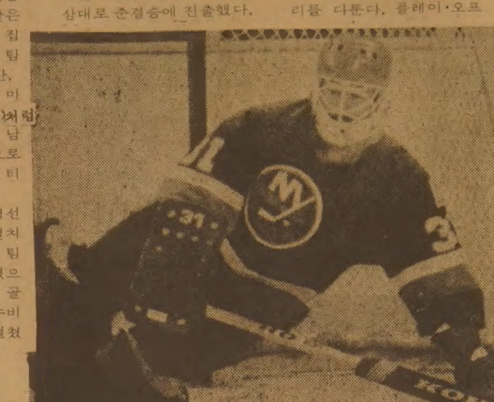
◆쾌벡 · 노르딕스

전년도 우승팀인 뉴욕·아일랜더즈가 쾌백·노드릭을 운이좋아 이겨 준결승까지 올라온 신데렐라같은 팀으로 생각하거나, 제 집에서만 텃세를 부리는 팀으로 간주해서는 큰 오산.

쾌백은 몬트리얼과의 마지막 경기(4:3으로승리)처럼 보스톤과의 최종경기를 남겨둔 25일밤 보스톤으로 원정 2:1로 승리, 준결승 티켓을 따냈다.

쾌백의 체코출신 망명선수 스태스니 3형제가 펼치는 화려한 공격은 어느 팀보다 강한것으로 알려졌으나 플레이·오프에서는 골리 부샤드가 이끄는 수비력으로 더욱 명성을 떨쳤다.

웨일즈의 또 하나팀인 뉴욕·아일랜더즈는 데인저즈를 4승2패로 누르고 에상대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뉴욕 · 아일랜드의 베테란골리 빌 · 스미스

캠벨·컨퍼런스에는 가장 약체팀으로 지목받던 뱅쿠버, 시카고가 등장 결승자리를 다툰다. 플레이·오프 준결승에는 미국에 후렌차이즈를 둔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캐나다에 본거지를 둔 쾌백과 뱅쿠버가 진출, 미국대 캐나다의 대결같은 인상을 준다.

소련이외에는 적수가 없다는 캐나다하키는 작년9월 몬트리얼에서 패배한이후 웨인·그래츠키, 대릴·시틀러등 NHL유명선수들로 대표팀을 급조했으나 소련에 다시 2연패를 당했다.

캐나다는 27일 체코와 대진 은메달내지 동메달을 노린다.

◆뱅쿠버 캐넉즈 ◆시카코 블랙학즈

| 캐나다 | | 미국 |
|---|---|---|
| 쾌 벡 | : | 뉴 욕 |
| 뱅쿠버 | : | 시카고 |

# 한인라이온조클럽
## 창립1주년 자축파티

봉사단체인 한인라이온스클럽(회장 윤여경)은 17일 프린스호텔에서 창립1주년 자축 파티를 가졌다.

이날 회원부부 김현모씨 사회, 서준경씨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축하식에 이어 빙고게임, 댄스파티등으로 친목을 다졌다.

자유와 지성, 국가안전(LIONS)을 모토로 하는 라이온스 클럽은 80년 9월 창립, 81년 4월 정식인준을 받았다.

라이온즈클럽은 창립이후 한국노년회에 칼라TV1대 기증등 봉사활동과 외부인사 초대강연, 우리말 잘하기및 웅변대회 개최, 한국 천보라이온즈와 자매결연등의 행사를 가졌다.

초대회장은 박영조씨였다.

# 이종수도장 5체급 휩쓸어
## 제3회 캐나다태권도대표선수 선발전

(키치너-이태은기자)지난 24일 키치너 코네스토카 칼레지에서는 제3회 캐나다 태권도대표팀선발전이 전국 40여개 도장에서 750여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각체급 결승이 끝난후 7시부터 진행된 김용순무용단이 펼치는 고전무용, 호신술 시범등이 있었다. 로이, 프랜시스 캐나다 태권도연맹 회장을 대리한 홍성인 부회장을 개회사에서 "3년만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것에 감사한다. 태권도가 이제 올림픽종목으로 한발 다가섰으니 더욱 분투, 태권도를 세계에 빛내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9개종목중 5개종목을 몬트리얼 이종수도장 선수들이 휩쓸었고, 토론토선수들은 한개의 금메달도 못땄다.

각체급 금메달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을 소속도장)

플라이: 스티븐·요(오타와 이태은)

밴텀 : 킹·영(위니펙 강주원)

페더 : 레이몬드·보라드(몬트리얼 이종수)

라이트: 다니엘·홍(런던 홍성인)

웰터 : 지살린·라콤부(몬트리얼 이종수)

라이츠미들: 피터·기그리오티( " )

미들 : 저지·롱( " )

라이트·헤비: 마이클·라몬티( " )

헤비 : 필립·호로한(키치너 오충원)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 교포2세 태권도인 양성
### 한국대표선수 출신의 정영수씨

캐나다에 약 60여개 한국인 사범들이 태권도도장을 열고있고, 토론토에는 10여개 도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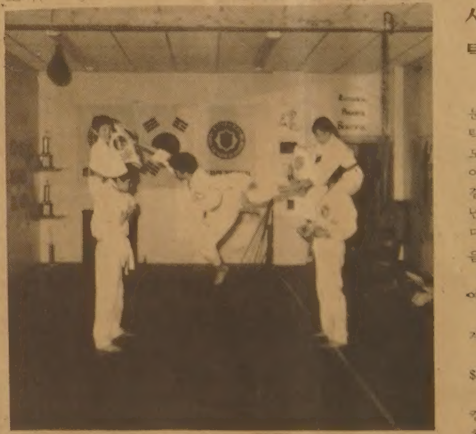
이중 대부분은 주로 서양인들을 상대로 태권도를 가르치며 체력단련을 시킨다.

세인·클레어에 영정태권도아카데미를 열고 있는 정영수 사범도 그중 하나이다.

"서양인들의 태권도인 양성만 계속되면 수십년후에는 체리·세능으로 한국인들이 태권도 종주국의 위치를 잃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는 정사범의 얀데로 이제 많은 태권사범들이 교포2세들의 태권도인 양성에도 관심을 쏟는다.

토론토에 정착한지 2년된 정사범은 한국태권도대표난의 일원이었고, 해병대, 공수단, 은광여고, 보교 중앙대등에서 코치생활을 했었다.

지난 24일 키치너에서 열린 태권도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은 못거두었으나, 앞으로 더욱 정진, 소속도장 선수들을 '캐나다대표선수'로 기르는 것이 정사범의 목표다. 교포2세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쏟겠다고 했다.


◆정영수 도장의 수련생들이 시범을 보이고있다.

### 사업계획 수립
### 탁구협회 임시총회

지난 25일(일) 하오7시30분 크링톤호텔에서 열린 탁구협회 임시 총회 정영모회장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9명이 참석, 작년도 결산보고및 사업보고후 금년도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탁구대회(5월과 10월예정)
2. 탁구회관 문제(현재 계속 조사중에 있다)
3. 회비(정회원은 연회비 $50, 준회원은 $20)
4. 전국체전 참가건(탁구경기가 번외 게임인 경우, 참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계절
# 안과 밖

장 연탁 (조각가)

◇장연탁씨

노틀담 대성당을 파리의 숙녀라 부른다면 성 패트릭(St. patrick)성당은 뉴욕의 연인이라 나는 부르고 싶다.

맨하탄 중심가에 위치한 이 고딕식 대성당은 주위에 꽉 들어찬 고층빌딩 숲 때문에 그 위용을 과시하는데 손상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뉴욕인들의 마음의 연인으로 사랑받기에 족하리라 본다.

내가 이 성당에 관하여 이야기하려는것은 그 건축 양식의 훌륭함을 칭찬하고자 함이 아니다.

잡다한 현대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절한 안식일 것이다. 이러한 안식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회의 공동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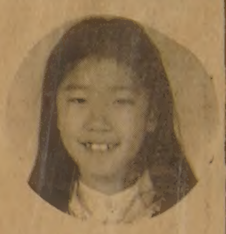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분주한 생활 사이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안식이 있다면 이는 생활인의 값진 지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뉴욕에 갈 때마다 기회만 있으면 이 성 패트릭 성당에 들르곤 한다. 거리의 소음과 인파, 찌든 공해 속에서 밀리다 이 성당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건 너무도 엄청난 차이의 양면의 세계를 순간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 갑자기 안겨다 준 정적 속에서 나는 잠시 자신을 잃게 되고, 서서히 저 애련의 빛소리처럼 정적 밖으로부터 투영되어 오는 메아리가 마음 깊숙히 젖어들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작은 인간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적지 않은 양의 탈로 무장된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 가야만 한다. 나 자신도 때때로 안과 밖의 평행선을 잊지 못하고 허위적댈 때가 많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이 고뇌의 나그네길에서 우리가 싸워야할 가장 큰 적은 우리의 안식을 좀먹는 양심의 이중적 양면성일 것이다. 이 양심의 양면성이 거리를 좁힐 때보다 밝은 마음의 안식이 찾아올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저 성 패트릭 성당이 나에게 안겨준 안식이란 거울처럼 내 자신의 마음을 똑똑히 비추어볼 수 있는 장소란 점일것이다.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우리일지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진 문이 그곳에는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 정지연양 금메달
## 필 · 뮤직서 2개부문1등


◆정지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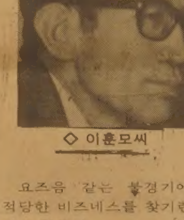
정주호씨의 딸 지연(10살)양이 제55회 필·뮤직·페스티벌에서 2개의 1등상을 탔다.

작년도 키와니스대회에서 1,2등에 입상한 지연양은 지난 12일 피아노 독주 11세및12세 부문에서 각각 1등, 금메달 2개를 탔다.


한국일보
533-2361


# 부동산 상식
## 그로서리외 다른업종을 찾아
## 교포상점에도 경제불황심화

이훈모(부동산소개업)


◇ 이훈모씨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적당한 비즈네스를 찾기란 매우 힘들다.

많은 교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매상 $6,000 이상의 그로서리·스토아는 신문이나 광고나 복덕방을 통해서 매물을 찾기 힘들다.

이 업종에 많은 교포들이 종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나, 남의 손을 빌리지않고 가족중심으로 할수있고, 또 비교적 소자본으로 출발할 수 있는데다 어려운 영어를 구사할 필요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종사할수 있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상의 경제불황은 모든 사업에 수익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변절을 가져왔고, 특히 대규모 식품상의 가격인하와 유사종류의 훗드·스토아의 난립은 우리교포들의 상점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기타비용의 앙등, 임대조건의 악화는 모든 사업체의 전망을 어둡게하고, 3년전의 주매상 $6,000과 오늘의 주매상 $6,000은 실지 수입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것은 임대조건의 악화라 하겠다.

옛날 보편화되었던 5년+5년은 이제 3년+3년식으로 단축되고, 특히 리즈(임대계약서)를 갱신할때는 집주인에 애걸복걸해서 몇년 연장되는 옵션을 얻을 수 있으나 렌트조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경제사정의 악화로 일부 집주인들은 임대자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셋돈보다 기회를 봐 임대자의 사업자체를 가지려는 욕심을 부린다.

따라서 교포들은 사업과 건물이 함께 붙은 부동산을사기를 원한다. 앞으로 남의 집에 세들어 사업하기가 점점 불안해 진다. 수년간 부동산업에 종사해온 필자는 그로서리 스토아 이외에 우리 교포에게 맞는 사업은 무엇일까 생각해 왔다. 세탁소, 꽃가게, 철물점, 과일가게, 휘쉬앤드칩스, 햄버거 숍, 도너츠숍, 영업시간이 짧은 빌딩이나 몰 속의 커피숍, 식당 등 수많은 업종이 생각된다.

각 업종마다 특색이 있고 또 사업이란 각자의 소질과 취미, 가족사항이나 신체조건, 영어의 숙달과 년령, 그리고 자본금등등의 제반조건을 고려 선택하는 것이니 어느 특정사업이 좋다고 모든사람에게 권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경기가 나쁠때누 뒤번데 막론하고 먹는 장사가 좋고, 먹는 장사중에서도 얼굴을 타지않는 업종이 좋다고 생각한다. 캐나다는 미국과달라 보수성이 강하니 사업하는데 얼굴을 타기 쉽다. 이것은 마치 한국식당에서 백인요리사가 매운탕을 만들어 내놓으면 그의솜씨가 아무리 훌륭하다해도 한국인손님들이 꺼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계속)

## 새映画

# 창녀와 건달들이 흐느적 흐느적…

## 풍기단속반

영화평 란을 읽다보면 「Exploitation Movie」라는 단어에 종종 접하게 된다. 이말은 대체적으로 남성의 폭력에 짓밟히는 가련한 여성을 주대상으로 그린 영화를 뜻하는 것으로 영화가 나올때마다 여성해방론자와 비평가들의 뭇매를 맞기가 일쑤다. 저질이라고.

「Vice Squad」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근래 보기드물게 이런류의 영화로선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군더더기 없이 산뜻한데다 그 내용이 사실적이어서 극장지붕만 떼어내면 바로 옆동네 얘기를 들여다보는 듯 흥미가 진진하다. 폭력이 난무하고 피가 튀지만 어차피 설교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 아닌 이상 다소 몸서리가 쳐진다해도 현실이 그러니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폭력물로선 근래 보기드물게 짜임새가 있는 「풍기단속반」. 하우저가 휴블리를 붙잡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무대는 우리 열마당 헐리웃파 선셋거리. 윈시와 질은 화장을 한 현대가 공존하는 이 거리에 날것같은 요란한 음악이 흐르며 창녀와 건달들이 흐느적 흐느적 흐른다.

주인공은 풍기단속반 형사 게리·스완슨과 고급창녀 시즌·휴블리 그리고 필프 윙스·하우저.

천하의 악당 하우저는 자기물건인 창녀가 자신의 손아귀를 벗어나면 끝까지 찾아가 철사옷걸이로 때려 죽여버리는 헐리웃의 피물. 스완슨은 이 거구의 밤의 제왕을 잡으려해도 증거가 없어 애를 먹다가 휴블리를 덫으로 사용 마침내 체포한다.

그러나 하우저는 경찰서로 호송중 탈출해 버리고 이때부터 복수를 위해 휴블리를 찾는 하우저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헤집는 스완슨간의 쫓고 쫓기는 장면이 긴박감 있게 전개된다. 자신을 찾는 두 사람의 절박함과는 아랑곳 없이 영업을 위해 한적히 걷는 휴블리의 자태가 절묘한 대조를 이루며 영화는 튀기듯 생동감이 있다. 밤의 헐리웃 경찰서 내부의 진풍경도 그럴싸하고.

간단한 내용을 짜임새있게 처리한 게리·셔먼감독의 솜씨도 재치있지만 뛰어난 것은 산처럼 큰 체구에 잘생긴 얼굴을 가졌으면서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날뛰는 '우저의 연기다.

엠버시픽처스 배급, 등급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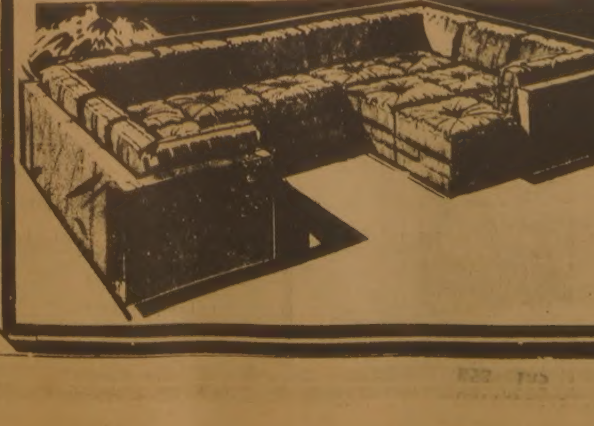

# LEON'S 가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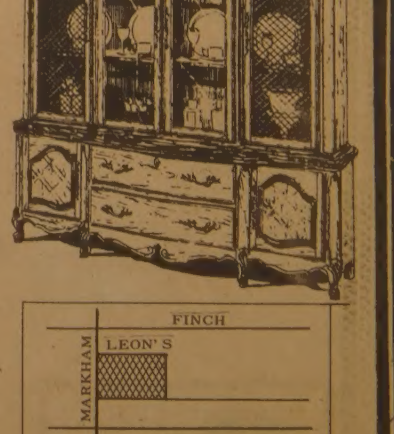
한국인 세일즈맨

조 석 민
KEVIN CHO

역사와 전통
캐나다 최대 규모의 WHOLESALER (SINCE 1909-)

o FURNITURE
o CARPETS- 모든 카펱종류
o APPLIANCES-T.V.,전축,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DISHWASHER, 스토브, 마이크로 오븐, 후리저 등등 각종 전자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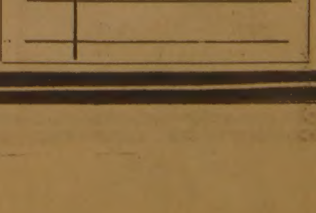




※오실때는 미리 회사나 집으로 전화 약속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저녁10시까지.

20 McLEVIN AVE.
(스카보로) (세파드 × 마캄)
B) 291-3818
R) 749-9687, 746-098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심사위원들이 별실에서 심사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인숙, 나옥녀, 마이클·쿠노, 이병권, 이석현, 전경수. 엎드린 분은 김효위원.

# 미스·코리아 대회 뒷얘기
## 심사는 이렇게 치렀다

◆예비심사

이번 미인대회 심사는 이렇게 치러졌다.

지난 21일(수) 저녁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실시된 출전후보들의 첫소집·연습때 심사위원들은 출전의상·화장을 아니한 후보들의 있는 그대로의 신체및 언행들을 개별 검토, 정확한 판정을 위한 예비지식을 얻기 시작했다.(이날 진행·지도는 이광민씨)

두번째 소집일(23일) 저녁6시 역시 한인회관에서 실시된 대회진행 설명및 총연습은 이장성씨, 협조 상기일씨.

심사위원회는 이날 후보들을 차례로 인터뷰, 대회를 나눔으로써 내면적 실력(지식·재치·표현력·표정등)을 종합검토했다.

또한 이정숙(현대무용)·석인혜(웅변)·김선미(조화)·윤혜련(피아노)등 특기희망자의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은주(연기)와 권미리(피아노)는 신청했다가 자진취하했다.

특기 예비심사 결과 조화의 김선미양은 낡은 나일롱양말, 철사등으로 멋진 꽃을 만들었으나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므로 대회 진행상 본인의 양해를 얻어 이정숙·석인혜·윤혜련의 3명만 특기를 겨루도록 결정했다.

대회날인 24일 하오3시, 대회장 본무대에서의 마지막 총연습때도 심사위원들은 후보들의 동작·표정등에서 마지막 예비지식을 얻었다.

한편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배부된 각후보의 진단서(직업, 학력, 특기, 희망, 취미, 키·무게·가슴·허리·히프의 신체조건)도 심사의 참고자료가 됐다.

채점기준을 총 100점 만점제로 한복(정숙도)—20점, 수영복(육체미·용모)—50점, 야회복(교양미·대화)—30점으로 각 위원이 총점을 매겨 자기나름 평가의 순위를 적어 종합검토때 제출 집계했다.

특기심사는 10점 만점제로 연기력과 반응도를 주로 보았다.

피아노의 윤혜련양은 연기력이 인정받았고, 무용의 이정숙양도 열연했으나 테마(한반도 평화통일) 선택의 적절함과 관중의 연발된 반응도로 보아 웅변의 석인혜양에게로 돌아갔다.

인기상을 관중의 박수와 호응도로 미루어 권미리양이 차지했다.

이날 8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심사표에 매긴 순위를 집계한 결과의 금메달(1위) 획득수는 아래와 같다.

5번 한승희—5
9번 유혜련—2
12번 박우희—1

◆심사위원(8명)
이석현(위원장, 시인)
김 효(미술가)
전인숙(모델)
유회자(음악가)
전경수(사진협회장)
나옥녀(전 탤런트)
이병권(체육회장)
마이클·쿠노(Key Artist Corporation, Promotor)

◆어느 행사에서건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있기마련. 이번 미인대회에서는 무대장치, 조명, 무대감독, 진행등 뒷치닥거리에 바빴던 사람들이 이들이다.

연출을 맡은 장기실씨, 이장성씨는 꼬박 4일밤을 지샜고 대회 당일에도 작업복 차림으로 무대뒤에서만 분주했다.

무대감독을 맡은 이광민씨, 조명의 이계성씨는 이장성씨의 동생들로 심사위원에 선발된 부인 유회자씨까지 이씨 일가족이 이번대회에 총동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향·전기장치등에 수고한 광훈씨의 공도 컸다.

◆대회 1주일전까지 매표가 활발치못해 주최측은 애초부터 500명미만의 손님을 예상 홀이 비좁았다.

주최(한인회)측은 미리 착석한 보도진에 "임원석으로 예약됐다"고 점잖게 않은 사람을 쫓기도.

◆7시가 넘어도 계속 몰려드는 인파때문인지 주최측의 계산착오때문인지 준비된 저녁식사가 불충분.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저녁을 사양해야 했다.

오모씨는 할당된 입장권을 하나도 안팔고 오히려 저녁못 먹었다고 불평하는 일부 관객들을 선동 $15씩 반환 받게했다는 소식도. 늦게와서 저녁못 먹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나 예약수를 적게 예정 충분히 써비스 못한 주최측도 문제.

◆이날 여흥을 돋군 가수 이숙, 서유미및 연주를 맡은 코리아·키튼즈, 호흡이 잘맞은 사회자 후라이보이 곽규석씨와 피세영씨의 노고도 치하할 만 했다.

다른 어떤 쇼보다 진행이 좋았다는게 관객들의 중평.

가수 이숙은 이날 창밖의 여자, 사랑만은 않겠어요, 꽃 바구니, 가을비 우산속에, 영원한 친구를, 가수 서유미는 못잊을 사람, 너무 짧아요, 꽃가마, 열애를 각각 열창했다.

## 많은 한인학생 참가
## OCA 작품전시회

온타리오미술대학(Ontario College of Art)은 오는 30일부터 연례행사인 재학생들의 작품전시회를 갖는다.

회화, 조각품 각방면의 50여 학생이 출품할 전시회에는 OCA에 재학중인 많은 한국학생들의 작품도 전시된다.

전시회는 오는 30일부터 5월2일까지 OCA전시관(100 MacCaul St.×Dundas)에서 열린다.

◇ 보스톤 컴퓨터 쇼케이스 엑스포지숀에 출품된 65개 키보드를 갖추고 바테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컴퓨터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 1 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문의처
533—2361

# 영원의 방랑객(31)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고 마태오

##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그것은 주님의 복음말씀을 잘못믿는 신자들의소행이지 그 자체가 그리스도교 교리가 잘못되어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것은 아니지 않소?"

"물론이지요. 그러나 하느님의 은혜와 신앙만을너무 강조하다보면 인간 의 노력을 소홀히 하는것같은 인상을 갖게됩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마태3장8절)이렇게 광야에서 외친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인즉, 신앙생활의 근본을 회개에 두고있는 그리스도인은 생활을 통해철저하게 도덕상의 규범을 지키고 인격수양을 해야만된다는 뜻이 아니겠소?"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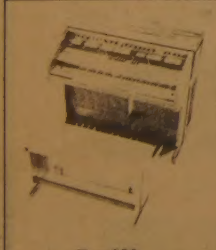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장, 5장을 읽어보시오. 물론 당신도 그복음을 여러번읽고 묵상했을 것이며, 또 공부도 했을꺼요. 거기에보면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과 당신께 대한 신앙심을 깨우쳐 주기전에 당신을믿고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신자세로 생활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치셨소. 그것은 바로 인격수양과 도덕적 생활이 신앙생활의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소?"

"저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리스도교적 근본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인격수양의 지침서로 삼고 있읍니다. 인간적 행위에대한 판단기준을 행위적 결과에두지않고, 그 결과를 있게 한 동기의 순수성에 두고있는 그리스도교의 윤리관은 정말이지 고상하고 거룩한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복음말씀보다 바오로 사도의「믿음 만으로…」를 신자들은 더 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한 바오로 사도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오로 사도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오. 그분의「믿음 만으로…」는 그분의 심오한 신학과 신앙체험의 결론적인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흔히 오해하고 있소. 말하자면 그런 결론이 있기까지 그분이 걸어온 신앙생활의 과정을 사람들이 잊고있기 때문이오. 모든일에 있어서 과정이 없는 결론만을 보면 흔히 거기에는 별의별 오해가 있기 마련이오. 어디 그분의 신앙생활이 평탄하였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던 바리사이파의 한사람으로서 인간의 노력의 한계와 하느님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한 분이 아니었소? 어느날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려고 다마스코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한 다음에도 로마서 7장에서 그분스스로가「아, 나는 과연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것을 하게 되고,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것은 하지 않고있으니 말입니다.」이렇게 신앙고백을한 것처럼 그분은 인간노력의 한계점을 현저하게 체험한 분이오. 그런가하면 또한 갈라디아서 2장에서,「이제는내가 사는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안에서 사시는것입니다」이렇게 말씀하신그분은 필립비 4장13절 에서「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읍니다.」라고 하셨소. 이렇게 인간능력의 한계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분은「오로지 믿음!만으로!」라는 찬미는 바쳤던거요.

(계속)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세계적으로우수한 가와이피아노및 전자올갠 ★★★★
10% —30% 할인
봄맞이재고정리대매출
기간 : 4월17일부터4월30일
○ NEW, USED, DEMO,
교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보답코저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아래품목을 특별할인판매 합니다.
전자올갠

E—620

E—360
그랜드 피아노

KG—3

GS—30

CE—7N
(Open Wainut)
UPRIGHT 피아노

802—1

802—M

UST—7

US—50

KS—3F
○ 은행월부판매가능
(1년~3년)
MARKHAM PLACE
2900Steeles Ave. E.
Thornhill
881—8211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883—9407

'82 미스코리아

화려한 美의 競艶
1982. 4. 24

# 제 7 회 캐나다미스코리아선발대회

## 토론토 홀리데이인에서— <1>

◆우아한 품위의 한복미녀들을 소개하는 후라이보이(우)와 피세영씨(좌) 왼쪽부터 안주영, 함승희 · 김선미 · 윤혜련 · 박은희 · 권미리 · 이은주 · 석인혜 · 이정숙양.

◆늘씬한 육체미를 과시하는 수영복의 미녀들. (왼쪽부터 박은주 · 윤혜련 · 석인해 · 함승희 · 이정숙 · 김선미)

◆지난회(제6회) "진" 허윤정양(우)이 새 미의 여왕 함승희양에게 왕관과 가운을 인계하고 있다.

◆후보들의 동작· 표정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지켜보는 심사위원들.
왼쪽부터 전경수· 유회자· 마이클쿠노· 이석현· 김효· 전인숙· 이병권· 나옥녀씨.

◆"선"의 트로피를 받는 윤혜련양 (박영철부총영사가 전달하고 있다. 뒤 중앙은 인기상 권미리양)

◆수영복 차림의 "미" 박은희양

◆인터뷰시간 : 장래 희망에 대해 1번 안주영양과 대화를 나누는 곽규석씨

◆개회사를 하는 박인순 대회장

## 화 보 !

◆"진에 5번 함승희양!" 사회자 후라이보이의 외침따라 활짝 웃음 피는 함양(왼쪽)과 축하하는 "선"윤혜련양(오른쪽)

◆유명가수 이숙양의 특별출연 "창밖의 여자"등을 열창하고 있다.

◆7번 김선미양이 뽑은 <취미>에 관하여 인터뷰하는 사회자 후라이보이


# 토론토한인교향악단
# 제 4 회 공연

교포여러분의 힘찬 성원으로 지난 1년동안 놀랍게 성장해온 토론토 한인교향악단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정명화씨를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이 제 4 회 공연을 베풀고저 합니다. 이번에도 함께 나오셔서 아름다운 예술의 향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 휘 : 김 승 순(Sung-Soon Kim)
첼 로 : 정 명 화(Myung-Hwa Chung)
곡 목 : 1) Rossini—Overture to "William Tell"
2) Dvorák—Cello Concerto in B Minor, Op 104
3) Beethoven—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장 소 : RYERSON THERTRE (43 Gerrad St. E.)
일 시 : Saturday, May 29, 1982 8 : 00 P. M.
티 켓 : A석 : $10, B석 : $8.

※티켓문의처 :
TORONTO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2900 STEELES AVENUE EAST, SUITE 220, THORNHILL, ONTARIO, CANADA L3T 4X1 TEL; (416) 881-8211

# 제 2 회 한인친선낚시대회 개최공고

일 시 : 5월 24일〈빅토리아 데이〉 오전 9 : 00～오후 4 : 00
시 상 : (1)특등, (2)대어 1 등, (3)대어 2 등, (4)대어 3 등, (5)4 등, (6)5 등, (이상 모두 PIKE에 한함), (7)잉어대상, (8)희귀상, (9)노익장상, (10)부부상, (11)아동상 〈12세 미만〉

※주의사항 : 1. 등록비 $5를 납부하고 등록번호를 받을것.
2. 82년도 회비 필한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수시로 등록비가 면제되며 선거 피선거권과 리셉션에 초대함.
3. 1인 낚시대 1개 바늘2개 이하사용
4. 본인이 잡지않은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질서가 문란한 선수는 입상에에서 탈락될 수 있음.
5. 잉어상, 희귀상, 부부상, 아동상등에 해당자가 없을때에는 시상식후에 등록번호로 추첨함.
6. 1인 입상을 불허함.
7. 낚시대, 바늘, 미노스, 떡밥, 지렁이등 각자지참.

※대회조직 : 대회장 : 정삼열 부회장 : 곽창수 총무 : 최남해
진행 : 이장관, 백은범 재무 : 김종근 심사위원장 : 강철용
심사위원 : 김재용, 이근호, 구진모
안내 : 755—9902 정, 298—7806 최.

후원 : 총영사관, 한인회, 한국일보
찬조 : 무역진흥공사, 동궁식당(곽창수), 한국식품, 불로아안경(구진모), 미도파선물(장추신)

--- 토론토한인낚시협회 ---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 刑事처벌 留保

## 聲明관련자 11명全員 歸家조치

## 국민和合따라 엄중警告만

## "過誤 되풀이 않겠다" 覺書

한국교회사회 선교협의회의 「反美성명」 파관련, 신부·목사등11명을 소환조사해온서울지검은 23일하오 관련자전원을 모두귀가조치시켰다고 공식발표했다。이로써 지난15일 동협의회가 발표했던성명파동은 일단락됐다。서울지검 金慶會공안부장은 이날하오5시 기자회견을갖고『환문대상자중 일부인사의 행위는 현행법률상 분명히 범법행위를 자행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그러나 대부분의 환문자들이몇명의 주동자에의해 작성된성명내용이 국가와 사회에미칠 중대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고 진술했고 그동안비등한 국민적비판여론이 본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계기가되어 이번성명에대해 깊이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않겠다는 다짐을 확실히했다고 밝혔다。

◇金慶會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23일하오 검찰청6층 회의실에서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 성명서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金공안부장은『지금이야말로 모든 국민의 화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번만은 엄중히 경고, 환문관련자들에게 형사책임만은 유보하기로하고 조사를 일단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조사결과 성명서는 42명의 이름으로 발표됐으나 채택과정에서 협의회 지도위원 실행위원 연석회의에 22명만이참석, 20명의 인사가 불참했고 이들 불참자들은 전화로 회의내용과 성명발표예정사실만을 통보받거나 해외에 여행중이어서 성명의 구체적내용과는 무관하다는사실이 밝혀졌으며 상당수인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몇몇 주동자와 이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에의해 주로 작성채택발표됐다고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성명서가발표되자 그 내용중▲釜山미문화원 방화의정당시 ▲反美입장의천명▲대립과해방의논리가보안법위반혐의가있다고보고 ▲허위사실유포등의표현이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있다고보고 관련자들을 지난21일부터 소환, 성명서의 제작동기와 배경, 발표경위등을 3일동안 철야심문해왔다。

지난 21일부터 검찰이 환문조사한 성직자들은 다음과 같다。

▲權晧景목사(40·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총무)▲許秉燮목사(41·〃실행위원)▲鄭相福씨(38·〃한국기독학생총연맹총무)▲趙之松목사(53·동협의회부회장)▲朴炯圭목사(60·〃고문)▲印名鎭목사(·〃실행위원)▲徐南同목사(64·〃지도위원)▲金容福목사(44·〃)▲金勝勳신부(43·〃회장)▲朴弘신부(42·〃지도위원)▲諸廷坵씨(39·〃실행위원)

### 日、귀환·보상검토 사하린抑留 한국인

【大邱】日本집권당인 自民黨이 蘇聯사할린에 억류돼있는 韓國人의 귀환과 함께 이들 연고자들에대한 억류보상문제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15일 日本도오꾜지방법원민사3부에서 속개된 제35차사할린억류한국인귀환청구소송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했던 中蘇이산가족회 李斗勳회장이 日本自民黨간부를 만난자리에서 확인했다。

### 北傀、群衆집회열고對南선동

### 釜山放火사건 관련

【서울=聯】釜山미문화원방화사건과 이의 여파로 파생된 종교계일각의 「반미성명」을 계기로 한국민의 반미감정고취와 국론분열조성에 혈안이되고있는 북괴는 지난21일 그들 대남통일전선기구이며 위장평화선전조직인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성명」이란것을 발표한데이어 22일에는 平壤에서 근로자·학생들을 대거 동원한가운데 군중집회를 잇달아 열고 한국의 국론분열과 한미이간을 노린 악의적인 대남선동을 자행하고 있는것으로 북괴전기관들이 보도했다。

北傀는 22일 平壤군중집회를 통해 『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통일을 바랄수도 없다』느니 『남한인민 특히 대학생들은 반파쇼민주화투쟁과 반미투쟁을 결합시켜 들고 일어나야한다』는등으로 한국학생들의 소요를 선동하는 가운데 美문화원방화사건및 「반미성명」에도 언급, 방화범들의 『애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느니 이들을 『무조건 즉시석방』해야한다느니 『교회사회선교협의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도 반미성명을 발표했다』운운으로 이를 적극비호선전하면서 對南 날조 모략선동을 자행했다。

**해설** 對南전략이용 속셈

北傀가 釜山美문화원방화사건과 종교계일각의 「反美성명」을 계기로 平壤집회를 열어 對南선동을 획책하고 소위 「祖統」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학생들의 소요를 선동하고 있는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對南전략인 이른바 「南朝鮮내의 혁명분위기조성」과 駐韓미군의 철수를 노려 赤化통일을 피하려는 속셈이 틀림없다。

北傀는 美문화원방화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소위 「統革黨」방송을 통해 한국민의 反美감정을 획책해왔으며 崔基植신부가 구속된뒤에는 「국내세력을 말살하려는 반동책동」운운으로 이번사건을 그들의 對南전략에 이용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또 이른바 「祖統」성명을 통해 美國을 「光州사태의 주모자」라느니 「인민탄압 조종자」로 악랄하게 모략하고있는것은 光州사태 2주년을 앞두고 학생, 종교인등 일부 불만계층을 충동질해 反美,反정부 소요를 야기시키려는 속셈임에 틀림없다。

「祖統」성명은 그러나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反美성명에 관해서는 일체언급하지 않고있다。이는 그들이 「反美성명」을 공식으로지지,反美선동을 강화할경우 오히려 한국내의 汎국민적규탄여론을 더욱자극시켜 한국정부의 문제종교인들에 대한 규제조치의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가될것을 우려한 속셈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社会漫評

와글와글……끝!!

# 대장균이용 抗生劑원료 개발

## 국내최초 遺傳조작 페니실린G효소 생산

### 서울大 盧賢模교수팀 발표

우리나라 최초로 대장균을 이용하는 遺傳子조작 방법에 의해 20여가지 주요 항생물질의 기초원료가 되는 6—아미노페니실린酸(6—APA)을 생산해 낼수 있는길이 서울대자연대 盧賢模교수팀에 의해 열렸다。

◇盧賢模교수

이같은 사실은 盧교수가 23일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생화학회창설15주년기념 심포지엄과 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페니실린G효소 유전자조작과 발현연구」에서 밝혀진것으로 큰관심을 모은다。

6—APA란 앰피실린을 비롯, 피암피실린, 헤타실린, 클록사실린, 아목실린등 20여종의 주요항생제의 기초가되는 물질이다。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미생물이 생산해낸 페니실린G로부터 7~8단계의 복잡한 화학공정을거쳐 합성해내고 있다。

盧교수팀은 이같은 6—APA를 페니실린G로부터 곧바로 얻어 낼수 있게하는 페니실린G酵素를 유전조작방법을 이용, 대장균으로부터 직접생산해내는데 성공한것。

盧교수팀이 이같은 페니실린G효소의 유전자조작 발현연구에 착수하기는81년7월。

盧교수팀은 우선 페니실린G효소를 생산하는 菌株(ATCC11105)세포속에서 유전자(DNA)를 뽑아낸 다음 이를 수용체인 制限효소(PST1、HIND Ⅲ)로 잘라냈다。

그리고 이를 유전자운반체인 플라스미드(PBR322)를같은제한효소를이용、수술을해서이곳에페니실린G효소를생산하는 DNA를 끼워넣은다음 逆製酵素(T4)를 이용, 재조합 했다。그리고 이를 페니실린G효소를 생산하지않는 다른대장균(HB101)에 집어넣어, 형질을 전환시켜 페니실린G효소의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형태의 인공대장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盧교수팀은 이 새로탄생된 대장균을 페니실린G가 들어있는 배지에서 배양, 살아남은 균주의 성질을 분석해 보았다。그결과 이들가운데 재조합된 유전자운반체가 들어있었고 이들이 실제로 페니실린G를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盧교수는 앞으로 새로만들어진 이들 인공대장균이 보다높은 페니실린G효소 생산성을 갖도록 하면서 이들 유전자의 구조를밝히는 연구를 계속할계획이다。

▲李世泳고대농대교수=주목할만한 결과이다。그러나 재조합된 유전자를 지니고있는 대장균이 어느정도의 페니실린G효소 생산성을 갖느냐가 문제이다。현재 페니실린G로부터 6—APA를 복잡한 화학공정을 거쳐 만들고있는것은 페니실린G효소를 이용하는것보다 값이싸게 먹히기 때문이다。이 방법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려면 페니실린G효소의 생산성을 높여값을낮춰야할것이다。

### 中央아프리카 外相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23일상오 청와대에서 중앙아프리카의 장·루이·제르빌·양발라 外相과 알퐁스·콩바디 農業相을 접견하고 각각 修交훈장光化章을주었다。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長官과 朴魯洙駐중앙아프리카대사가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하오 룩셈부르크의 에밀·앙리·크림스 국방장관(保健및 체육장관겸임)을 접견하고 保國훈장統一章을 주었다。(사진)

이자리에는 周永福국방、金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 市長·郡守에晩餐도

全대통령은 23일 저녁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市長·郡守·區廳長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노고를 치하 격려했다。

## 佛·시리아관계 惡化

### 폭파사건관련 兩國서 大使소환·外交官추방

【파리·다마스커스22日AP聯=聯】프랑스·시리아관계는 22일 파리중심街에서 발생한 시한폭탄 폭발사건과 관련, 시리아외교관 2명에게 추방령을 내리고 시리아駐在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한편 시리아측이 이와 똑같은 외교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급격히 냉각됐다。

캐나다를 방문중인 피에르·모르와수상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가스통·드페르 프랑스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리의 시한폭탄폭발사건을 발표하면서 시리아주재대사를 협의차 소환하는 한편 파리주재 시리아 무관 하산·알리와 문화담당3등서기관 1명에 대해 48시간내에 프랑스를 떠나도록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시리아도 이날 프랑스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있은직후 프랑스외교관 2명에대해 48시간이내에 시리아를 떠나도록 추방령을 내리는한편 프랑스주재대사를 소환했다고 시리아관영 SANA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시리아外務省이 이날 알리·세르방 프랑스대사를 外務省으로 불러 시리아주재대사관무관과 2등서기관을 본국에 송환할것을 통고했다고 전했다。

시리아는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지난2월 이스라엘방문과 관련,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제휴하여 反시리아 캠페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며 프랑스는 최근 부분적으로 미테랑 대통령의 이스라엘방문에 대한 시리아측의 비난때문에 양국관계가 손상됐다고 밝힌바있다。

## 協商진전 없는듯

### 핌英外相、헤이그와 1차회담

【워싱턴22日 AP聯=聯合】프란시스·핌영국외상은 포클랜드사태의 해결을위한 영국의 새로운 제의를 휴대하고 22일 워싱턴에 도착, 이번사태의 중재를 맡고있는 알렉산더·헤이그 미 국무장관과 만나 영국의 제의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美英양국 관리들이 전했다。

핌외상은 이날 도착직후 헤이그장관과 4시간동안의 1차회담을 가졌으며 회담후 『우리는 유익한 출발을시작했다。그러나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있다。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있다』고말했다。

영국소식통들은 핌 외상이 휴대한 새 제안이 ▲아르헨티나軍의 포클랜드철수▲포클랜드의 잠정관리▲포클랜드 주민의사를 존중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주권협상등 3단계 해결안을 포함하고있다고 전했는데 한 소식통은 영국이 우선 영국에 의한 잠정관리를 실현한 연후에 주권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협상할 태도를 보이고있다고 전했다。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과(右)프란시스·핌英國外相이 22일 美국무성에서 英·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분쟁에 관해 논의하고있다。
【워싱턴22일 AP電送=聯合】

### 한국일보詩壇

**아침 선물**

尹 鍾 燦

상처 입은 사람
상처 없는 사람
人生의 마른 길에서
골고루 비쳐주는 아침 햇살
저 멀리 새벽길 할아버지
山에서 담아 온
이슬로 빚어낸 藥水를

한 주전자。
어젯날의 맺힌 응어리
물 한 컵에 녹아
모두 다 和笑의 선물
손가락 발가락 사이로
어느새 솔솔 솔솔
빠져 흐른다。

### 地平線

일본에 에도·와즈라이(江戸煩=東京病)라는 특별한병이 얼마전까지 있었다。에도는 지금의 동경 옛이름이다。德川幕府가 태평성세로접어들면서 쌀값이 싸지자 무사계급이나 서민들이 배가터지도록 쌀밥만 먹었다。그때까지만해도 보리、좁쌀、수수처럼 맛없는 곡식만 먹던 그들이라 白米一邊倒가 된것도 당연하다。

▼한데 쌀밥을 많이 먹으니까 자연히 딴부식은 적게먹게마련이다。精米法이 어지간히 발달된 때였으므로 비타민B1만을 偏食한결과 脚氣病이만연했다。이들이 앓는 다리가붓는 脚氣였다。병에걸려 시골에 내려가는 사람이 속출했다。이상하게도 에도근교의 하꼬네(箱根)만 넘으면 이병이 저절로 치유됐다고해서 에도·와즈라이라고했다。東京만 떠나 시골에가면 잡곡밥을 먹기때문에 이내 없어지던 병이다。京都·大阪에서도 같은 병이 대유행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선 영양실조증에 걸렸던 日政末期를 빼놓곤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병이다。그이유는 한국사람들이 잡곡을 많이먹었기 때문이다。일정때 징병검사를 할때마다 체격이 좋은 한국인을 보곤 잡곡밥떡이라고 일본사람들이 부러워했던것이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서울사람이 건강식으로 보리를 섞어먹고 시골사람은 흰밥을 먹는집이 많다고도 말한다。몸에좋고 값도 싼 보리를 먹어야 하는데 밥맛이 쌀보다 못하기때문에 보리에대한 인식이 모자라 시골에서 흰쌀밥을 더 좋아하기때문인지모른다。정부에서는이번에 쪼갠 쪽보리쌀(割麥)을 방출한다。검은테를 없애만든것으로 한가운데를쪼개 밥을 지으면 쌀밥처럼 희고 다시 삶을 필요가없다。당뇨병·동맥경화증 예방에도 효과가 높고 영양가가 쌀밥보다 훨씬많은 것은 물론이다。

▼보리는 건강식이면서도 머리를 좋게하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두뇌활동에 큰 관계가있는 글루타민酸이 많은것이다。보리에는 8%의 蛋白質이있고 그蛋白質의 40%가 글루타민酸이다。쌀의 蛋白質은 7%、그속의 글루타민酸은 17%밖에 안되므로 빵을 먹어야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생리학자들마저있다。좋은국토에서 벼농사를 해야 우리의 主穀을 확보할 수 있고 쌀의 効能이 보리못지 않다는 것이 定論이긴하나 보리가 우리몸에 더좋은것만은 어쩔수없는사실이겠다。

▼남아도는 보리쌀을 소화하면 스스로의 몸에도 좋고 나라살림에도 도움이 된다。이솝寓話에서 다이어먼드를 찾아낸 장닭이 寶石45개보다 보리한알이 자기에겐 더필요하다던 대목이 생각난다。고기나 우유를 먹는 요즘식생활은 예전과는판이하지만 올해 보리농사가 풍년이라는 소리도 들리는이때 건강에 좋은 보리를 먹어야 흰쌀밥偏食病에서 우리스스로를 지켜줄것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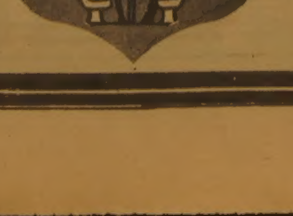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巨龜莊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흥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기간 : 4월27일(화)부터 매일공연
(월요일만제외)
오후9시— 새벽1시
〈영업시간〉 월·화·수 :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 오후2시～ 새벽1시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 이집트、先發隊 파견

## 시나이引受작업 착수

### 10國평화軍 새國境투입준비 완료

### 15년「이」旗 내일 下降

【카이로22日AP=聯合】시나이반도점령이스라엘군의 최종철수를 가로막고있던 주요난관이 타결된직후 이집트는 22일 행정각부의 대표로구성된 선발대를 시나이반도 이스라엘점령지역에 파견하고 실지회복을 기념하는 횃불주자를 시나이북부와 南部를 향해 각각 출발시키는등 시나이반도를 최종인수하기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와함께 미국을 비롯 10개국군으로 구성된 2천6백명의 다국적 시나이半島평화유지군이 이스라엘군 철수후 동부시나이반도의 새로운 이집트 이스라엘 국경완충지대에 투입될 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집트는 시나이반도회복을 기념하기위해 2일간의축하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호스니·무바라크 대통령은이스라엘군의 최종철수가 단행된 다음날인 26일 이집트의회에서 중요외교정책 연설을 함으로써 시나이 반도회복을 기념할 계획이다.

이스라엘국기는 25일 상오 9시 (한국시간 하오 4시)에 마지막으로 내려지며 이스라엘군은 정오 (한국 시간 하오7시) 새국경너머로 완전철수한다.

한편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왕복하며 외교절충을벌인 월터·스토슬美국무차관은 이날 8번째로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이집트의 신문들은 스토슬차관이 이집트관리들과 함께 이스라엘 에일라트항남쪽 영토를 둘러싼 미해결의 사소한 분쟁문제를 토의할것이라고 보도했다.

◇브레즈네프의"健在" 27일동안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않아 와병중이라는 풍문을 뿌렸던 蘇聯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가 22일 크렘린궁에서 거행된 레닌탄생 1백12주년 기념식에 정치국원 콘스탄틴·체르넨코와 함께 참석 담소하고있다. 【모스크바22日AP電送=聯合】

## 南조지아섬 英上陸임박

【런던22日AP=聯合】포클랜드(말비나스) 군도로 항진중인 영국해군기동함대소속 구축함들이 사우드·조지아섬근해에 접근이 임박한가운데 영국은 아르헨티나에대한 해상봉쇄를 가하기위해 사우드·조지아에 1단계로 상륙작전을 감행할것이라고 영국신문들이 22일 보도했다.

## 印尼최대「民主祭典」

### 野黨선거운동 일환、百萬시민 참가

【자카르타22日AP=聯合】1만여대의 각종 차량에 분승한 1백만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22일 야당인 회교연합개발당(PPP)이주최한「민주의 제전」퍼레이드에 참가、폭우를 무릅쓰고 수도 자카르타시에서 약5시간동안 사상최대규모의 차량시가행진을 벌였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이날의「민주제전」퍼레이드가 10㎞의 긴행렬을 이루었으며 시가행진도중 약30분간 쏟아진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5시간도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시가행진은 야당인 PPP가 오는 5월 4일의 총선을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마련한것으로 PPP대변인은 반둥、탄게랑등 자카르타 인근지역 지지자들이 21일저녁부터 각종차량을 몰고 자카르타로 몰려들기시작했다고 말했다.

## 「이」、레바논空襲계속

### 탱크越境…시리아 "攻擊저지"선언

【베이루트22日AP=聯合】이스라엘이 21일 레바논에대한 대규모공습을 가한데이어 22일에는 베이루트와 남부레바논지역에 전투기를 파견하는 한편 탱크부대를 월경시킴으로써 이스라엘과 레바논국경지대의 긴장상태가 계속고조돼있다.

한편 21일 공중전에서 2대의 전투기를 상실한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은 레바논에 거점을둔 팔레스타인게릴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어떠한 새로운 공격도 저지할것이라고 선언했으며 팔레스타인 강경파들은 더이상 남부레바논의 휴전을 준수할수 없으며 이스라엘에 대한무력투쟁을재개할것이라고위협했다.

이스라엘의전투기들이 이날 베이루트상공에 출현하자 팔레스타인의 포대들은 즉시 대공포를 발사했는데 이스라엘은 남부레바논의 수개지역과 시돈항상공에도 전투기를 파견한것으로 보도되었다.

팔레스타인소식통들은 또 이스라엘탱크들이 이스라엘의 지원을받는 레바논우익민병대의 점령지역으로 넘어들어오는것이 목격되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PLO관리들은 21일 이스라엘의 대공습이 팔레스타인人들을 전면적인 전투로 끌어들여 레바논에대한 침공의 구실로 삼으려한것같다고 말했다.

## 포클랜드、현대海戰 試驗場가능성

### 各國海軍주시「해리어」機·核潛艦 촛점

【뉴욕발=聯合】한때 목선과 범선이 어울려 해전을 벌였던 포클랜드근해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해전이 일어나려하고있다.

영국은 지난2일 아르헨티나군에 점령당한 포클랜드를 탈환하기위해 대규모 함대를 분쟁지역에 접근시키고 있으며 영국항재기와 아르헨티나전함들이 정찰기가 조우하는등 쌍방간의 무력대결 가능성이 고조되고있다.

산발적인 충돌외에 바다는 2차대전이래 대체로 평온을 유지해왔다.

아르헨티나해군은 금세기들어 전투를 해본적이 없으며 영국함대사령관인 존·우드워드제독도 전투경험이 전혀없다.

그러나 함정이나 무기、전술은 크게 변했다. 지상용으로 제작된 무기와 항공기는 45년이래 여러차례 사용된바 있으나 해상용무기나 항공기는 거의 시험되지않은 상태에 있다.

허드슨 연구소의 海戰전문가인 노먼·프리드먼씨는 포클랜드에서 海戰이 벌어질경우 세계각국의 해군들이 이해전을 지켜볼것이며 특히 실제성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 현대식함정과 무기 체제의 성능을 주의깊게 살피게될것이라고 말하고있다。

해상미사일의 위력은 지난67년 중동전당시 이집트軍이 미사일 1발로 이스라엘구축함을 격침시킨것만보아도 어느정도인지 알수있다。

『과거에는 일단 상대방이 이쪽을 향해 포를 발사하면 속수무책이었다。그러나 지금은 미사일을 이용해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포탄을중간에서 요격할수 있게됐다。이것이 옛날과 다른점이다』고 맥과이어씨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해전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항공기라고 말하고있다。

제트전투기1대는 초음속으로 수천만파운드의 폭탄과 미사일을 수백마일씩 운반할 수 있다。

프리드먼씨는 만약 포클랜드사태가 전투로 비화되면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해리어 수직이착륙기의 전투능력이 전문가들의 추요관심거리가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클랜드군도로 항해중인 영국항모 허미즈號 함상에서 시·킹(海王) 헬리콥터와 수직이륙기 해리어機를 동원, 훈련중인 영국해군。

## 外信안테나

◆週末지구에 磁氣폭풍예고

막대한 에너지를 우주공간에 방출하는 태양활동의 폭발과 이에 수반하는 태양표면폭발로 인해 금주주말 지구상에 대규모 자기폭풍이 예고된다고 美해양대기국 (NOAA) 대변인이 22일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지구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이 자기폭풍이 일요일인 25일 일기시작하여 그 이튿날까지 계속될것이며 이 폭풍에 따르는 오로라 (극광) 현상이 25일밤 육안으로 관찰될수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보울더=AP】

◆西獨브란트·슈미트 再選

서독집권사민당은 22일 빌리·브란트사민당의장과 헬무트·슈미트부의장을 재선하는 한편 핵발전소건설을 2년간 유예할것을 요구하는 좌파의 제안을 압도적다수로 부결시켰다. 【뮌헨=AP】

◆美、온두라스基地사용協商

미국은 쿠바가 소련제신예전투기로 공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대처하기위해 온두라스와 공군기지사용문제를 협상중이라고 프랜시스·웨스트 美국방차관보가 21일 밝혔다. 【워싱턴=AP】

◆말聯 연합國民戰線재집권

말레이지아의 집권 연합국민전선은 23일 실시된 총선의 중간개표결과 1백54석의 하원의석중 과반수가 넘는 78석을 확보함으로써 재집권하게 되었다. 11개정당의 연합체인 연합국민전선은 개표가완료된 84석중 78석을 확보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쿠알라룸푸르=베르나마】

◆이、한때 레바논占領계획

이스라엘은 21일 레바논에 대한 대공습을 감행하기로 최종결정하기앞서 레바논을 침공, 그 영토일부를 점령할것을 검토했었다고 이스라엘의 야당인 노동당지도자중 한사람인 아바·에반前외상이 이날 말했다. 【시애틀=AP】

◇合成섬유 패션·쇼

프랑스產業省이 후원하여 최근 파리에서 열린 合成섬유 패션·쇼。메이커別로 이브·셍·로랑 크리스천·디오르 기·라로슈등의所屬 모델들을 총동원했다고。【키스톤=聯合】

## 海外토픽

### 「도오꾜 로즈」망령

★英艦에 섹시한 女子목소리

포클랜드로 항진중인 영국함대장병들에게 두려움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려는 한 섹시한 女子음성이방송돼 영국정보전문가들이 조사중이다。

자칭「리버티」(자유)라는 이 여인의 목소리는 2차대전중 연합군사기를 떨어뜨리기위해 선무방송을 했던 「도오꾜 로즈」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최근 축구전적과 의사당시계종소리를 들려주고 있다고한다。

리버티는 또「죽음은 한참 때 젊은이에게 쉽게 온다」는 노래에 이어 어째서 평화스런 나라를 공격하러가느냐고 애절하게 호소한다는것。

이메시지는 영국의 한열렬한 방송팬인 73세의 실업가가 듣고 녹음、테이프들을 국방성에 전달했다。 【런던聯合=特】

### 가족계획 앞장못서

★수하르토「子女6명미안」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 티엔여사는 인도네시아가 가족계획사업을 절실히 필요로하고있지만 자신은 이미 6명의 자녀를 두고있기때문에 가족계획 캠페인에 직접 나설수없는 처지라고토로。

티엔여사는 가족계획 실행으로 포상을받은 부부들을초청한 자리에서 자신은 항상 신혼부부들에게 가족계획을 실시하도록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미 6명의 자녀를 두고있는 자기로서는 가족계획에 앞장설수없는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말했다. 【자카르타=AP】

### 교편잡는 英國왕자

★에드워드、오는9월에

◇…엘리자베드여왕의 3남1녀중 가장 총명한 자녀로 알려진 에드워드왕자(18)는 현재 스코틀랜드의 애버딘셔에 있는 고든스타운고교에 재학중인데 오는9월 졸업하는대로 이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뉴질랜드 왕가누이고교에서 2학기동안 교편을 잡을 예정이라고。

영국왕자들이 대학진학을 앞두고 본국을 떠나 英연방국에서 수업하는것은 하나의 전통。에드워드왕자의 큰형인 찰즈황태자는 1966년에 濠洲의 지롱고교에서 수학했으며 또한 현재 해군헬機조종사로 포클랜드군도작전에출전중인 둘째형 앤드루는캐나다의레이크필드고교에 다녔었다. 【런던=AP】

## 메아리

권투선수 생활을 세영어단어의 頭文字를 따서 PTL로 표현한다고한다.고난(Pain)、눈물(Tear)、탄식(Lamentation)이다。

주먹이라는 자본으로 프로선수가 이「三苦」를 참고 싸우는것은 돈벌이와 명예를 위해서다。

「4角의정글」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그 승부의 세계는 非情하기만 하다。링에 올라서면 어떻게든 이겨야 살아 남을수 있다。승리욕이 때론 지나친 無理를 불러 부작용을 빚게 한다。

일본의 한 주간지가 藥物복싱의 흑막을 터뜨려 그 불똥이 우리 권투계에 준 충격은 아직 기억에 생생하다。

이번엔 역시 일본의 권투전문지가 한국복싱의 조소거리를 파헤쳐 한숨을 자아내게 한다。

태국의 無名복서가 자기나라 「有名의 이름」을 빌어 우리나라 링에 올라섰다는 것이다。듣고 보니 꼭 도깨비에 홀린것 같다。사실 도깨비와 싸운 꼴이 됐다。

동양권에선 우리 프로복싱이 단연 강세다。동양·태평양타이틀 12체급중 11개 타이틀을 독점하고 있을 정도다。그만큼 권투붐도 대단하다。텔리비전에서도 고정프로로 방영돼 열기를 뿜는다。

### 도깨비 복싱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는 동남아 선수들은 거의 샌드백신세가 되어 허약한 느낌을 준다。이들이 받는 대전료는 5백달러에서 1천달러쯤으로 알려지고 있다。액수는 적지만 이것을 모아보면 큰 돈이 된다。

지난 79년초부터 15개월간 외국선수들불러들이는데 쓰인 外貨는 64만4천달러이다。물론이 가운데엔 세계타이틀전에 든 목돈도 포함되었을것이다。반면 해외원정경기를 통한 수입은22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유령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뒷맛이 쓰다。

속인것이 우선 나쁘지만 속임을당한것이 분하다。알고도 넘어 갔다면 더 큰일이다。프러모터나 권투위는 눈을 감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 어처구니 없는「도깨비 복싱」의 피해자는 우리 선수와 관중이다。많은팬들이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것 같다。「한국프로복싱 왜 이 지경인가…」

## 宣教協성명사건 檢察發表文

<全文>

서울지방검찰청은 최근 남북분단상황하 우리의 안보와 북한공산집단과의 관계、우리의 정치·경제·사회의기본체제와 관련되는 문제점으로 큰 물의를 야기한 韓國教會社會宣教協議會의 4월15일자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 내용을 검토한바、「북침준비완료」「反美투쟁」「남북분단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등의 북한공산집단주장에 동조하고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선동하면서 부산미국문화원을 불지르고、대학생을 태워죽이기까지한 反국가적·反민족적만행을 정당시하고、「對美敵對行爲」를 당연시하여 反美태도를 천명하고 있는등 이성명서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판단하여 이 성명서의 작성·채택·발표에 관여한 다음 11명을 4월21일부터 喚問하여 조사하였다.

▲權皓景(40·목사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총무)=성명서초안작성
▲許秉燮(41·목사 동협의회실행위원)=성명서 초안작성
▲鄭相福(38·한국기독학생총연맹총무 동협의회실행위원)=성명서초안수정
▲趙之松(53·목사 동협의회부회장)=성명서초안논의 수정안검토
▲朴炯圭(60·목사 동협의회 고문)=성명서 채택에 관여
▲印名鎭(36·목사 동협의회실행위원)=성명서 채택에 관여
▲徐南同(64·목사 동협의회지도위원)
▲金容福(44·목사 동협의회지도위원)
▲金勝勳(43·신부 동협의회 회장)=동성명서 검토 채택에 관여
▲朴弘(42·신부 동협의회지도위원)=동성명서 불온내용수정주장
▲諸廷坵(38·西江大대학원생 동협의회 실행위원)=동성명서1차수정안작성

◇聲明書 採擇經緯

①4월7일상오11시경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勞動分科 회의시 동협의회 權皓景총무가 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관련 崔基植신부의 구속문제를 동협의회의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거론하고 權皓景총무는 같은날 회장단4명과 실행위원10명에게 4월9일하오2시 실행위원회소집을 書面 통보하였다.

②4월9일하오2시동협의회權皓景총무 趙之松 印名鎭 許秉燮 鄭鎭東목사、裵鍾烈기독교농민회、鄭相福한국기독학생총연맹총무등 8명의 실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행위원회를 열고 부산방화사건등에 관하여 논의하는자리에서 權皓景목사의 제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하고 그 기초자로 諸廷坵、權皓景、許秉燮 3인을 지명하였다.

③4월15일 10시30분 시내敎岩洞소재상지회관에서 同협의회 지도위원및 실행위원연석회의를 개최한바 改新教측14명、天主教 8명、도합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參席者

▲개신교측=朴炯圭·趙之松·趙和順·趙南基·權皓景·吳忠一·李在禎·鄭鎭東·金東完·裵鍾烈·李海學·鄭相福·許秉燮·孔德貴
▲천주교측=池學淳·金勝勳·金永信·郭東哲·朴弘·李吉載·鄭仁淑·諸廷坵

이자리에서 權皓景총무가 초안을배포、낭독하자 朴弘신부는『주한 美대사、美8군사령관의 본국소환주장등은 내용이 과격하며、마치 일부 문제대학생의 데모유인물류의 성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池學淳주교『초안내용이 산만하고치졸하다』고 지적하였다。회장 金勝勳신부는 성명서수정을위해 朴弘、李在禎、鄭相福、諸廷坵등 4인을 指名하였다。

④같은날 12시30분경 같은 연석회의장 옆방에서 위에선 수정위원 4명이 작성한 제2차 초안을 회장 金勝勳신부가 낭독하자 趙之松 趙和順등 주로 도시산업선교회측 참석자가『내용이 너무 온건하다』고 이의를 제기함에따라 朴炯圭목사는 성명서의 작성및 발표문제를 회장단에 위임하자고 제의하여 이에 합의하였다。동협의회 부회장 趙之松목사와 趙和順목사 2人은 다시 성명서의 작성을 權皓景총무에게 일임하였다。

⑤權皓景총무는 4월15일 하오2시∼9시사이 단독으로 4월17일발표된 내용과 같은 성명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池學淳주교、朴弘신부등이 과격·산만하다고 이의를제기한 제1차 성명초안중 주한미국대사의 이른바「문제발언」에 대한 해명내용을 삭제하고 선진국과 한국의 국민소득에 관한 장황한 부연 설명을 제외한 것이었다。

權皓景총무는 4월15일하오9시 東大門성당으로회장金勝勳신부를방문하여 문안을 검토、일부 과격한 표현을 삭제하고「지명수배자의 수배해제」요구등을 추가한 후에 이를 인쇄하였다。

⑥회장 金勝勳신부는 池學淳주교로부터 4월16일、4월17일 두차례에걸쳐『대미관계등 문제점이 있으니문안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전화연락을받고 權皓景총무에게『북괴를 이롭게 할수있는 결과가 초래될 문제내용이 있으니 배포를 보류하라』고 지시하였다。

⑦權皓景총무는 千英草(28·여·동협의회간사)에게 인쇄된 성명서를언론및 회원단체에 발표할것을 지시하여 千英草는 4월17일 상오10시경기자및 회원단체에게 이미 인쇄된 성명서를 배포하였다。

◇調査內容

서울지검은 성명서의 내용중 다음과같은 부분이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환된 관련자들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釜山 美國文化院 放火의 正當視=「북침준비완료」「반미투쟁」「폭력에 의한 정부전복」등 북한공산집단과 동일한 주장을 내 세우면서 자행된 부산미국문화원의 방화범행을 ①5·17이후 학생시위의 反美구호 ②80·12 光州미국문화원 방화사건、③일부教界의對美비판발언등일련의불순폭력행위및언동과『같은맥락위에서파악』되어야한다고정당시하고이른바『한미관계의 현주소』에서 對美敵對행위가 한미관계의『원인과 배경에서연유된 反美감정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강변하여 이유가 있다는 주장。

◇反美 立場의 闡明=①한반도의안보현실에서 反美학생구호、光州미문화원방화、일부교계의 대미비판과 釜山미문화원방화사건을 두둔하고、

②한미간의 경제관계를 從屬관계에서해석、우리가못사는것이 마치이에연유한 것인양 주장하는등 성명이反美的 입장을분명히 밝히고 左傾 폭력행위까지 정당화하고있다는點、이 성명에서 성명관련자들을 국내문제인光州사태를『美國이容認』하였다고 주장、반미투쟁을 정당시하는 이유로서 강대국의 국내문제 불개입을 사대주의적으로 제기하고、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8군사령관의 본국송환을 주장하였다。

성명관련자들은 반미적이 아니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반하여 북괴에 동조하는 釜山、光州 미국문화원 방화등 반미폭력 테러행위와 극단적 사회 교란행위를 비호하고 있는 이유。

◇對立과 解放의 論理=▲이 성명은『강한者』와『눌린자』의 자유와 해방을 주장、노동자 농민을 정부 언론등과 대립개념으로 想定하고있으며

▲소위모든『政治犯』의 석방 사면과 光州·釜山 미국문화원 방화범등의 지명공개수배한 사실을 정부가 공개사과할것과 수배자의 전원수배해제를 요구하고。

▲가톨릭 농민회 도시산업선교회등 과격노동 농민운동단체、반미구호를외치는 반체제학생 집단과 동일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점。

◇허위사실의 유포=성명내용중에서 그들의 과격한 주장을 정당화하기위하여 주한미국대사、미8군사령관이 스스로 사실이 아님을 해명한 내용을 적시하고 이미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오염 연어통조림 수출기도등 허위·왜곡사실을 선동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점。

◇調査結果

검찰은 위와같은 문제에 대해 이들의 주장이 법률적으로는 물론 대한민국의 기본체제와 존립의 바탕마저 危害하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자들을 환문한바 그 조사결과

①이 성명서는 42명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나 채택과정에서 4·15성명채택키로한 동협의회 지도위원、실행위원 연석회의에 22명만이 참석、20명의 인사가 불참하였고、이들 불참자들은 전화로 회의내용과 성명발표예정사실만을 통보받거나 국외에 여행중으로 성명의 구체적 내용과는 무관하다는것이 밝혀졌으며、상당수 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몇몇 주동자와 이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주로 작성·채택·발표되었다。

②釜山및 光州 미문화원의 방화등 반미폭력행위를 정당시하는등 성명의 내용은 우리 헌법이 밝히고 있는 政敎分離의 원칙을 떠난 종교인의 정치관여행위로서 명백히 國法에 위배되는 可罰的 내용임을 확인하였으며、또한 주동적 책임을 물어야할 특정인들의 행위도 확인하였다。

③이들 성명관련자들중 상당수의인사들은 解放神學、民衆神學등 이른바진보적 新神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과격한 사회참여태도를 합리화하고있다。

이들중 일부인사는 현재의 정치·경제·사회질서는『가난한자』『억눌린者』를 탄압·수탈하는것으로보고 이들 계층을『解放』하기위해서는 물리적 투쟁방법도 정당시될수있다는 의식을갖고있는바、이들이 지향하는 국가사회체제는 우리헌법이규정한는 그것과 배치되는요인을 내포하고있으며 釜山및 光州 미국문화원방화사실까지 정당시하는 비합법적、물리적 투쟁방법론은 현행 법률은물론 국가의 安危에 유해하다고 아니할수없다。

④반미주장으로 전통적인 한미우호유대를위해하고 동반자적 한미관계를 從屬관계로 비방하는등의 행위는 한국의 안보체제를 약화시키고 결론적으로 북한공산주의집단을 이롭게할것이라는 명백한사실은 이성명관련자의 일부에의하여도 지적되었으며、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주한미국대사와 미8군사령관을 비방하는등 허위·왜곡사실의 유포는 법률적으로도 위배되는 행위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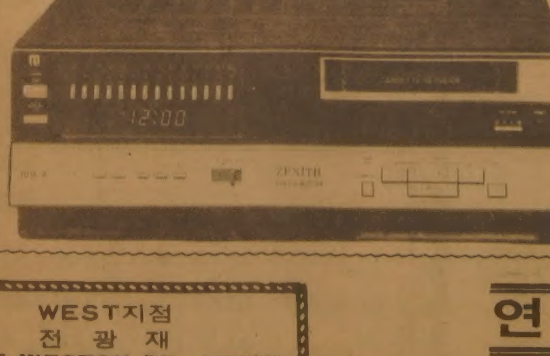
◇措 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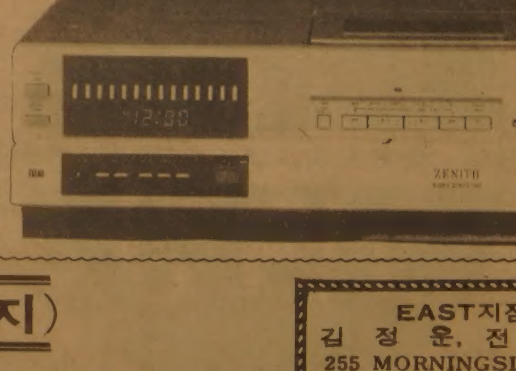
성명의 내용은 반미감정을 조성、한미간의 관계를 이간하고 폭력·사회교란을 획책하는 북한공산집단의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의 안보적 현실에 비추어 용납될수 없을뿐 아니라 환문자중 일부인사의 행위는 현행법률상 분명히 범법행위를 자행한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찰은 대부분 환문된 사람들이 70년대 反體制 論理의 연장선상에서 몇명의 주동자에 의해 작성된이러한 성명내용이 국가사회에 미칠중대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고 그동안 비등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본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되어 이번 성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않겠다는 다짐을 확실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지금이야말로 모든 국민의 화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번만은 엄중히 범법행위를 경고、환문관련자들에 刑事問責만은 留保하기로하고 조사를 일단 마무리 지었다。


# 앙콜세일

< ZENITH 비데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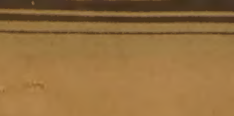




교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제니스·비데오 세일을 연장해서 다시한번 여러분께 세일 가격으로 봉사하게 되었읍니다.

연장기간 : 3주간 (5 월15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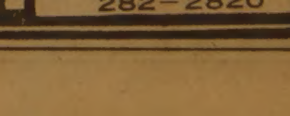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 성명波紋 개운한 마무리

## 한때 3목사 拘束說에 긴장
## 시민들 "다시 이런일 없어야"

지난17일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가 발표한 「반미성명」 이몰고온「釜山美文化院放火사건」의후유증은23일 검찰의 극적인결정으로 6일만에 개운한마무리가 지어졌다。 기독교계 일부 인사의 시행착오적인 「성명」은 전국민적 힐책을받는 사태로번져갔고 전체기독교계를 난처한 입장으로 몰아 넣었으나 검찰이 「국민적 화합」을 중시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처벌」을 유보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더이상의 깊은상처를 내지않고 사태가 조기수습되는 다행스러운 결말을 맺은것이다。 검찰의 「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부시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사회가 「성명파동」에 매달려 있지않게 된것은 『정말 다행스러운일』이라고 입을 모아 논평하고 『그러나 이번 「성명파동」에 관계했던 인사들은 이기회에 미국을 우방으로 생각하는 국민의여론과 안정을갈구하는 희망을해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않도록 깊은성찰을 해야할것』이라고 충고했다。

### 고위층 裁可과정서 극적인 「反轉」

한편 검찰의 「결정」에 대해 李英淑씨(36·대한여성경제인협회회장)는 이번 조치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본다。 특히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때 세계적인 불황인 이싯점에서 국민모두가 합심협력하여 난국을 이겨나가야 하고 그러기위해서는 국민화합이 절대 필요한것인데 이를위한 『이번조처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또 金斗献씨 (50)는『사회가 바람직하지못한사태로과열되는것이 걱정됐었는데 이제 마음이 후련하다』고 논평했다。

○…23일하오 검찰청사 6층 회의실에서있은 발표장에는 서울지검검사장이 발표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金慶會서울지검 공안부장이나와 차분한 음성으로 약 10분간에걸쳐 발표문안을 읽은뒤 보충질문도 받지않은채 총총히 퇴장。

발표장에는 서울지검 공안부소속검사 5명전원과 南部지청에서 보강됐던3명등 8명의검사가 모두 배석했는데 꼬박 이틀간의 철야신문으로 지친탓인지 눈들이 충혈된피곤한 모습들이었다。

○…고위층의 최종재가과정에서 검찰의 결정내용이뒤바뀐 때문인지 보도자료문안을 수정한느라 발표시간이 계속늦어져 마감시간에 쫓기는기자들을 당황케하기도。

검찰내부에서는「都罹」관계목사에 대한 구속문제여부를놓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는 후문。

대검이 이들의 구속에따른 파급효과등 이해득실을검토, 약간온건론을 편데반해 서울지검은 법대로의 처리를주장했다는것。

특히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정책적 배려는 위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몇사람은당연히 처벌돼야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는 후문도있다。

또 22일밤에는 강원大학생들이 성조기를 태운사건까지 전해져 검사들이 강경전의를 하게된 한계기가 된것으로전해지기도했다。

지검의 한간부는 23일상오 관계목사들이 구속될경우 관계법조항은 어느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이적행위」 부분이라면서 『그조항은 고의가아닌 미필적인식에서 나온행위라도 처벌이가능하다는게 대법원의 판례』라고밝혀 검찰의의견이 구속쪽임을 강력히 시사하기도했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이틀동안 내내 굳은표정으로 바삐움직이던 수사실무 총지휘자인 丁서울지검장과 대검李彰雨공안부장등은 23일 상오부터는 약간 여유를 되찾은 홀가분한 표정。

조사를 끝내고 검찰의의견을 집약했다는 안도감뿐만아니라 상부의 결정으로「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게된것에안도한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때문인지 李부장은 부산지검이 보내온 부산美문화원방화사건 공소장초안을 검토하는 여유도 보였다。

검찰조사는 22일 저녁무렵 이미 마무리되고 그후부터는 수뇌진의 최종적인 법적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2일 하오 조사가 마무리되자 鄭致根검찰총장등 간부들은 법률적용여부에대한 검토를 자정까지 계속, 이때쯤에는 「최종의견」이 합의된듯했다。

○…이번 사건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한 형식은 權皓景·許秉燮목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진출두가 아닌 임의 동행。

한사람을 데려오는데 서울지검 특수부 수사과 수사요원2명씩이 1조로 동원됐는데 공교롭게도 소환대상자12명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협의회간사 千英草씨(28)는 끝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사건에 유달리 많은 검사들이 동원된것도 또 하나의 특징。

서울지검 공안부 金慶會부장검사와 소속검사5명 대검의 검찰연구관 金相洙·趙俊雄·李鍾燦검사등 3명, 그리고 南部지청에서 지원나온 3명의 검사등 모두12명이소환자들을 1명씩맡았다。

또 조사에는 직접참여하지 안했지만 鄭총장을 비롯, 徐대검차장, 李대검공안부장, 丁서울지검장등 고위간부들도 거의 자정이돼서야 귀가 할만큼 이번사건조사에 전검찰이 총력전을편듯한 인상。

이번사건수사에 검찰은 유례없이 삼엄한통제와 보안을유지해 새기록을 세웠다。

일과시간중에는 서울지검 공안부가있는 청사5층입구를 수위2명이 지켜서서 보도진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고 일과후엔 아예 청사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했다。

○…검찰의 「소환자 전원귀가조치」 결정은 뚜렷이 열릴때까지만해도 전혀 감조차잡을수 없었을 정도로 오리무중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일부구속설」과 「전원귀가 조치설」이 몇차례씩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했다。

검찰의 발표직전까지만해도 검찰간부들의입을통해 흘러나온이야기는 朴炯圭·鄭相福·權晧景목사등 3명의 구속을 신중히 검토중에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3일상오 10시30분께 丁海昌서울지검 검사장과 金慶會공안부장이 李鍾元장관과함께 청와대에올라가 고위층에 보고한 뒤로부터는 「상황」이 급변한것으로 전해졌다。

고위층은 이 자리에서 『성명서내용이 결과적으로 북괴에 이롭게됐지만 고의는없지 않느냐』면서 『이번 기회에 「都罹」의 성격에 대해서 신·구교교직자들이 잘알게 됐으므로 앞으로 사회선교활동을 할때라도 「都罹」과는 보조를 같이하지않을것이다』고 지적, 검찰의 결정이 급선회됐다는 것이다。

결국 조사에 착수할때부터 가능성있는 한가지선택 카드였던 「법적조치없이 진상조사발표」라는 가장 바람직한 끝을 맺게된것이다。

歸家…한국교회사회 선교협의회 성명서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조사를받고 귀가하는 東大門성당 金勝勳신부。

### "物議빚어 미안"
#### 宣教協회장 金勝勳신부밝혀

검찰에 환문, 조사를 받고 23일낮12시30분께 풀려나온 한국교회사회 선교협의회회장 金勝勳신부(東大門성당)는 이날하오 4시께 기자들과만나『이번 성명으로 물의를빚어 유감스럽고 미안하며 신부와 목사는 크리스천이지 결코 반미주의자는 아니다』고 말하고 그 「성명」이 북한측에게 이용당할까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 各界의 反應

▲金榮根씨 (30·회사원)는『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하고『이같은 결정은 그들의 범법행위를 묵인하는것이 아니라 이후로는두번다시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국민화합이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인것으로 본다』고밝혔다。

▲文仁鉉목사(37·강일교회)는『반미성명은 종교계 전체의사가 아니고 극소수인들의 견해에 불과했지만 이것이평지풍파를 일으킨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량을 베풀어준것은 잘한일로보며 성명에반대하는 대다수교인들을 격려해준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反美성명 反駁성명 25개 基督敎團대표

한국기독교단 총연합회(회장 鄭榮鎭목사·貞訓중앙교회당회장) 산하 25개교단 대표들은 23일 상오10시 서울鐘路 YMCA회관에서 모임을갖고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성명을 반박했다。

## 金常起씨 自殺원인은 고객預金 9억원流用

지난 19일 자살한 元振프로모션대표 金常起씨 (37)는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에서 9억6천만원의 예금을 유용한 것이 발각되자 이를 변제하려고 고민하던중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은행감독원에 의하면 김씨는 조흥은행개봉동지점, 명동지점등에서 수신담당차장으로 근무하면서 私債등을 끌어들여 다른사람 이름으로 예금을한뒤 이를 예금주몰래 꺼내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런사실은 5월초에 있을 은행감독원의 정기감사에 대비, 조흥은행이 지난14일부터 자체감사를하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자신이 권유해서끌어들인 예금자의 예금청구서에 예금주몰래 별도의 도장을 미리찍어 두었다가 필요할때마다 이를꺼내 유용한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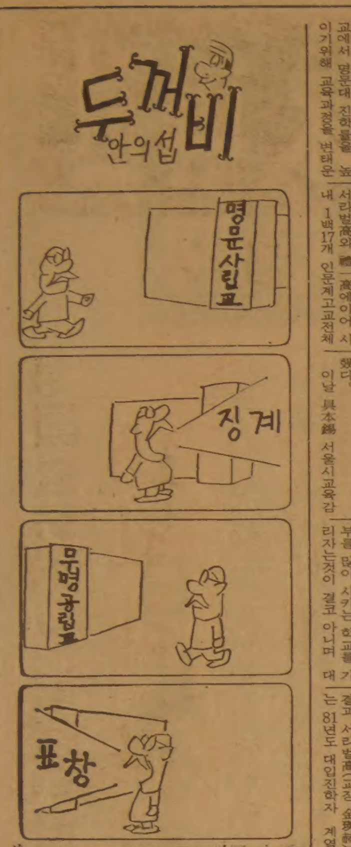
조흥은행은 김씨가 은행에 손실을끼친 9억6천만원중 김씨부인 申文子씨 (37)등 가족 친지명의로된 김씨소유의 부동산과 체육관등을 가족들과 합의하여 처분, 7억원 상당을 회수할수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회수불가능한 것은 대손처리할 계획이므로 예금주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 수류탄2개가진 脫營兵 大邱잠입 가능성

수류탄2개를 들고 탈영, 서울로잠입한 유병호 이병(21)의 뒤를쫓고있는 경찰은 23일 서울城東區陽洞6 奉누나집등 연고지와 무허가 하숙등 은신처와 유이병의집과 연고지를 수사했으나 23일하오까지 행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유이병이 大邱에잠입 가능성이 큰것으로보고 역과 버스터미널, 여인숙등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있다。





## 서울 모든人文高 전면監査
### 敎委 變態수업 드러나면 措置

### 서라벌高선 39명 內申성적 조작
### 禮一女高는 敎科別 우열반 편성

서울시교위는 23일 일부고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위해 교육과정을 변태운영하는 사례를 뿌리뽑기위해 서라벌高와 禮一高에이어 시내 1백17개 인문계고교전체에 대해 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具本錫 서울시교육감은 감사확대의배경에대해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를 가리자는것이 결코 아니며 대학입학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이 행여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감사결과에따라 잘못이 드러나면 모두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교위감사결과 서라벌高(교장 金英諴)는 81년도 대입진학자 계열석차 연명부에 39명의결석사항을 빼버리고 내신성적을 조작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9명중에는 우수학생도 상당수 포함돼 이들의결석사항은 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어있으나 대입원서 작성때 내신성적의 기록근거가되는 계열석차연명부상에는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

시교위는 학교측이 내신성적을 유리하게 해주기위해 결석사항을 누락시켜 이에의해 석차연명부를 작성한것으로 보고있다。

시교위는 이미 징계원칙을 세운 서라벌高·禮一女高교장등12명중 서라벌高 林昌燮교무주임은 파면토록했으며 나머지는 견책이나 감봉을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위에 따르면 禮一여고(교장 金禮恒)는 3학년체육·교련시간을 대입필수 과목인 英·數·국어과목으로 대체하고 교과별 우열반편성을 했으며 특정교사들에게 겸임명목으로 연간 2백만~8백만원씩을 덤으로 변태지출했다는 것이다。

또 서라벌고교는 대입내신성적의 10%로 평가되는 출석부를 교장의 승낙없이 임의폐기처분했고 각 학급에서 5~6명씩 우수학생을 뽑아 변칙수업을 해왔다。

## 아파트主婦 새벽變死사건 男便이"싸움끝 絞殺"자백

속보=서울江南區淸潭洞삼익아파트 주부변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3일 남편 辛聖澤씨(41·동원산업수산부장)로 부터『부부싸움 끝에 목졸라 죽였다』는 자백을받고 辛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辛씨는 지난16일밤 11시30분께 건넌방에서 싸움끝에 부인 崔貞姬씨(34)를 책장모서리에 밀어부쳐 머리를다친부인이 실신하자 손으로 목을졸라 숨지게 했다는 것。

辛씨는 범행후 자살로위장하기위해 변기커버로 목을감은 뒤 허위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 장티푸스接種 부작용死亡說 쌍둥이兄弟는 연탄가스中毒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고 숨진것으로 알려졌던 서울江西중학2년 金秉瓚(14)、秉珏군(14) 쌍둥이 형제는 연탄가스에 중독、숨졌음이 23일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의하면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秉瓚군은 64%、秉珏군은 72%로나타나 연탄가스에 의해 숨진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 불온油印物 뿌려 慶北大生 구속

【大邱】 대구 북부경찰서는 23일 慶北大 사대사회학과4년 康鉉周군(22)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康군은 4·19 학생의거일인 지난19일 상오8시15분께 경북대중앙도서관앞과 대구시南區大明洞 명덕로터리 2·28학생의거기념탑 주변에 불온유인물을뿌리는등 지난해 10월9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걸쳐 경북대동지에 불온낙서와 유인물을 배포해온 혐의이다。

## 反美전단 살포기도 江原大生 4명검거

【春川】 22일낮12시40분께 강원春川市 江原大 구내에서 江原大학생 李모군등 4명이 미국기인 성조기를 불태우고 반미구호등이적힌 전단2백여장을 살포하려다검거됐다。

이들은 이날학생회관 3층서클룸에서 헤드마이크로 시위를선동、李군은 미리 준비한 성조기에 병에담아온 석유를 뿌려 불태웠고 이와동시에 다른학생들은 유인물을 뿌리려다 검거된것。

## 다이너마이트 博士
### 지하철 복구현장의 許塡씨
### 火藥인생 35년만에 "가슴쓰린 각광"

화약박사 許塡씨(56·서울城北區貞陵洞227의106·사진)의 별명은 「다이너마이트」다。 35년째 화약과함께 살아서뿐아니라 성격도 솔직、쾌활하고 이따금 폭발하곤해서 바로 「다이너마이트」란 것이다。

다이너마이트許는 峴底洞지하철 공사장붕괴이후 몸이 2~3개였으면 싶을만큼 더바빠졌다。 지하철公社자문위원이기도한 그는 사고 1시간후부터 복구의 최대장애물인 뇌관제거에 나섰다。 2백49개 발파공의 뇌관중 폭발하지않은 47개를 조수들을 독려하며 제거했다。 또남은것중 65%는 위험이 없으며 35%는 터지더라도 위력이 대단치않아 그대로두고 작업해도 좋다는결론을 내려 주기도했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학자가없어 그의 결정은 절대적이었는데 그자신도 「대단한 단안」을 내린 셈이라고 가슴을 쓸어 내린다。

서울토박이인 그는 지난48년 京城광산전문학교를 나와 서울大공학과 대학원을 거쳐 美콜로라도大광산대학원에 유학、62년 귀국한이후 20년동안을 강원도산골에서 보냈다。 아무도 알아주지않는 발파작업을 지휘해온 이 현장소장은 모처럼 서울도심에서 활약을 하게 됐지만 이런 「각광」은 두번다시 받고싶지 않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는 가족과 떨어져 살기를 밥먹듯하는 「합숙인생」。 죽을고비도여러번 넘겼다。 3년전 雙龍시멘트東海공장에서 硝油폭약의 진동치를측정하려 2.3㎥에 5백개의 뇌관을 설치、50m앞 重機버케트안에서 구부리고 앉아 폭파위력을 計器로 측정했다。 돌들을 온통 뒤집어써 간신히 살아나왔지만 남들이『돌았다』고 손가락질할때는 섭섭하더라고。

화약기술학회회장 기술사회부회장 國民大강사등 직함이 5가지인 그는 기술사등 각종 면허 6가지에다 「신화약발파학」등 내달 출간할 것까지 저서도 5권이나된다。 요즘은 나틈(NATM)공법의 도입을 위한 계약업무로 눈코뜰새가 없다。

『10년에 한번 빛을 보더라도 남들이 않는 일을 하기위해』이길을 택했다。 80㎏의 거구。 수영·등산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부인 南相順씨(55·전북大교수·영문학)등 3식구와 살고 있다。 국제회의에도 자주 나가 지난80년엔 스웨덴·노르웨이를 들렀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35년에시작한 지하철공사를 아직까지도 계속하고있었다。 【任鍾淳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신장개업
동창, 단체회의, 계모임 이라고요?
당연히 크링톤 하우스지요.
○회의실(20명~100명)
○댄스룸(디스크·재키)
○게임룸
○식당(스낵바. 주문에 따라 간소한 한식도 써비스함)
○TAVERN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EST
크리스티·지하철 앞
☎535-9541 김 영 규 배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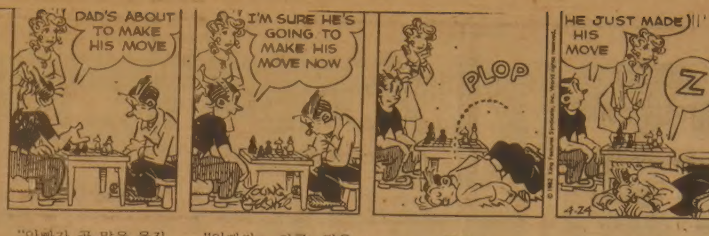


블루어안경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샾, 기프트샾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아빠가 곧 말을 움직이실 거예요"　"아빠가 지금 말을 움직이려는게 분명해요"　—풀석—　"아빠가 움직이시긴 했는먼" —쿨—

# 「동네북」된 한국拳鬪

## 이번엔 가짜波紋 유명선수 가장 泰복서 3명 KO敗

## 팬들 "日·比선수도 못믿게 돼"

한국프로복싱은 동네북인가. 가네히라(金平正紀) 측은 가시지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泰國의 무명 프로복서 3명이 엉터리이름을 대고 한국에 원정, 모두 석연치않게 KO패 당한 사실이 밝혀져 큰 물의를 빚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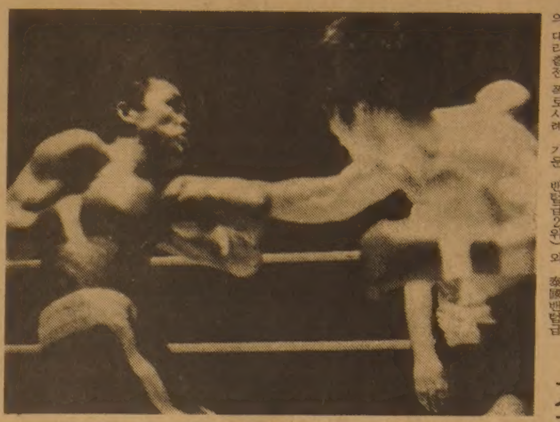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日本의 권투전문 월간잡지 「복싱·매거진」 5월호 (92페이지) 기사로 밝혀졌는데 한국권투위원회(KBC)도 복싱 매거진의 기사내용에 대해 『3가지 대리출전의 폭로사례 가운데서 이미 한가지 케이스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대리출전의 대표적 케이스는 지난 1월17일 문화체육관서 열렸던 李鍾洙(현한국밴텀급2위)와 泰國밴텀급의 강호 카오사이와의 10회전. 이경기서 李는 3회2분24초만에 간단히 KO승을 거두었으나 李가 싸운 상대는 카오사이가 아니라 前동양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으로 이미 현역서 은퇴한 몬시암·마하차이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 李鍾洙 두번 가짜와 對戰

## 泰國선 全員징계… KBC도 1件확인

## 藥物中毒이은 추문… 철저히 밝혀져야


◇카오사이 행세한 마하차이　카오사이행세를한 前동양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 마하차이⑥。76년 6월 장충체육관서 鄭相一과동양타이틀매치를 벌이는 모습이다。마하차이는 현역서 은퇴한지 오랜인물로 지난 1월17일 카오사이이름으로 한국에원정, 李鍾洙에게 3회KO로 쓰러졌었다。

◇暴露한 日「복싱·매거진」 泰國의 가짜선수를 폭로한 日本복싱매거진 5월호 기사。

## 「60억弗經協」 논의위해
## 日、「特使파견說」否認

【東京22日=宋孝彬특파원】

## 北傀의 獨裁잔학성
## 53國 言論기관보도

##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8局 第1譜 1～23 (각 5시간 덤 5집반)

白(4段) 鄭壽鉉〈2勝3敗〉
黑(7段) 河燦錫〈2勝2敗〉

左上귀 定石의 보기

[一凡]

## 流星의 賦 〈36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㉑

구독신청은 533-2361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94〉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㉘

# 朴鍾學 쓰러졌다
## 無名의 洪今杓에 한판으로 쓴잔
職場 단체유도

## 아틀랜타 1敗
美프로야구、레즈에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 745-8236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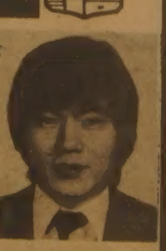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64 K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영림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 362-2300 MR. 리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영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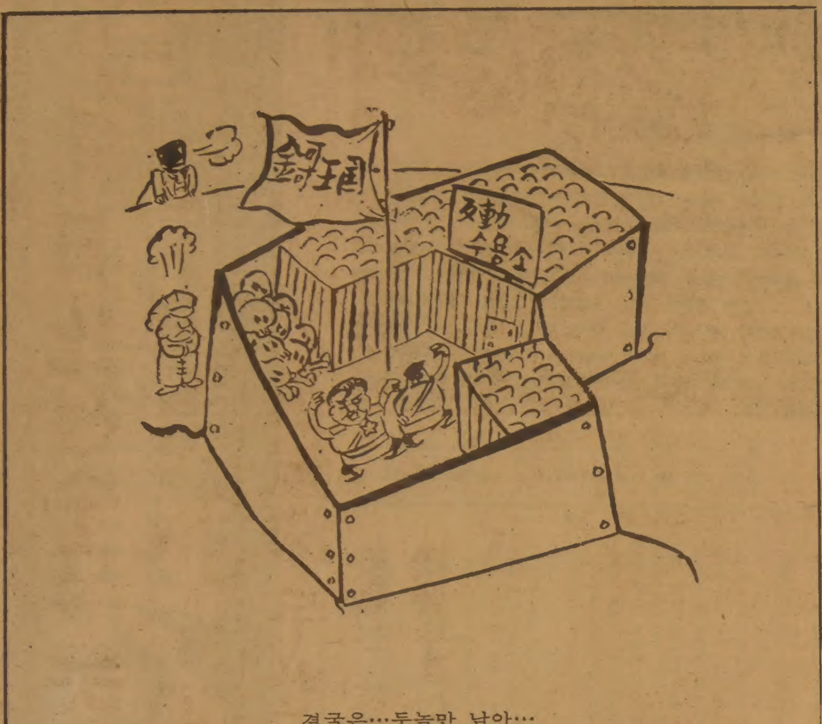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 週刊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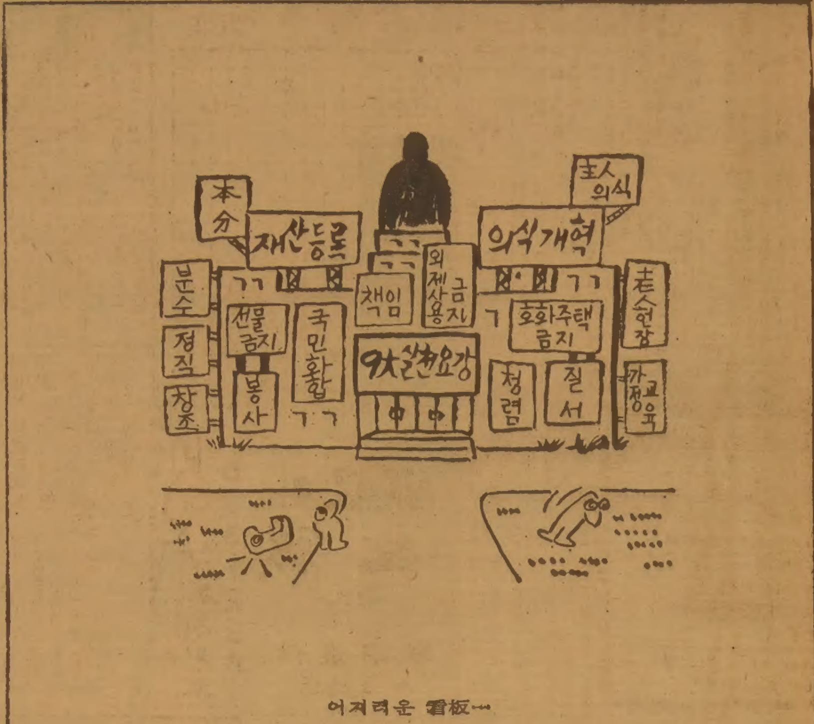
※언어 학습기구를 이용해서, 당신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당신집에서 3개월간 배울 수 있읍니다. 이것은 일하거나 바빠 학교에 다닐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SAVE-O-WAY AD. CO. 533-7324, 533-4966

## 안의섭 時事칼럼



결국은…두놈만 남아…

## 두꺼비 漫評



어지러운 看板…

## 週刊한국 스포츠

# 육상中興에 새바람
## 5명의 「한국新記錄」 얼굴들

지난10일·11일 양일간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36회 전국남녀대학생대항 육상경기겸 82년 세계대학생육상대회 파견 최종선발전에서 5개의 한국신기록이 쏟아져 금년 한국육상에 서광을 비춰주었다。한국신기록의 얼굴은 여자 1백m의 牟明姬(서울大)를 비롯, 여자 1천5백m의 金順花(고려대)、남자투창의 李喜聖(한국체대)、남자1천5백m의 金福柱(동아대)그리고 여자 높이뛰기의 金希宣(이화여대)이다。

◇金順花선수

◇牟明姬선수

### □牟明姬 女1백m

여자육상단거리의 호프 牟明姬(20)는 1백m에서 11초5를 마크、79년 자신이 세웠던 종전한국타이기록 11초7을 3년만에 0·2초 앞당겨 한동안 헤매던 슬럼프에서 벗어났다。

1백m의 종전 한국최고기록은 75년 李殷任의 11초7로 79년 당시 고교생이던 牟가 타이기록을 냈고 이번에 7년만의 한국신기록이 탄생한 것이다。

牟明姬는 1백m에서 한국최고기록을 경신함으로써 2백m와 함께 여자 스프린트의 2종목 최고기록보유자가 됐다。

1m72cm、65kg의 牟는 지난해 6월 東京아시아대회에 대비한 합숙훈련중 입은 발등의 부상등으로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있었으나 이번 기록경신으로 완전히 제 페이스를 찾았다。

◇남투창 최고기록을 세운 李喜聖선수의 폼。

### □金順花 女1천5백m

여자중·장거리 8백m、1천5백m、3천m등 3종목에서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있는 金順花는 자신의 적성에 가장 알맞는 1천5백m에서 4분27초41을 기록、지난해8월 日本에서 열린 4개국대항 주니어육상대회에서 세웠던 종전 한국최고기록 4분30초06을 7개월만에 2초25 앞당겼다。

1m60cm、48kg의 체격에 단단한 인상을 가진 金은 지구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코치들의 평。또 승부욕이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 상승무드속에 쾌속으로 질주하고 있다。

金順花가 처음으로 한국최고기록을 경신한 것은 79년 大田大興女商재학시절로 8백m에서 2분9초4로 한국신기록을 세움으로써 화제의 주인공이 됐었다。

金寅虎씨(49·서천가공조합상무)의 2남2녀중 차녀。

### □李喜聖 男투창

李喜聖(22)은 투창에서 72m60을 기록、70년 朴秀權이 수립했던 한국최고기록 71m88을 깨고 12년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全北體高1년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창을 시작한 李는 조주에서의 연결동작이 뛰어나고 손의 스냅을 이용할줄아는 선수라는 평을 듣고있다。

1m75、75kg의 체격。李는 국민학교때는 핸드볼선수였는데 중학에 진학하면서 육상으로 종목을 바꿔 투원반、투포환、투창등 투척종목에 주력했다。李成九씨(54)의 2남3녀중 차남。

◇金希宣선수

◇金福柱선수

## 男투창 72m60…女높이뛰기 1m78로 경신
## 1500m 男3분49초8 女4분27초41

### □金福柱 男1천5백m

작년6월 이탈리아 세계대학생육상대회 8백m에서 銀메달을 차지함으로써 일약 유망주로 부상한 선수다。이날 1천5백m에서는 3분49초8을 마크、75년 黃奎動이 수립한 3분51초F를 1초2 단축하는 한국신기록을 세웠다。이로써 金은 8백m、1천5백m 두종목에서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馬山경남국교5학년때부터 육상과 인연을 맺어 금년으로 육상경력 12년。1m75에 60kg의 다소 마른편이나 지구력과 스피드가 모두 뛰어난 선수라는 평을 듣고 있다。건축업을 하는 金龍石씨(57)의 2남3녀중 둘째。

### □金希宣 女높이뛰기

金希宣(19)은 여자높이뛰기에서 1m78의 한국신기록을 세우고도 그다지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었다。『1m83은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종전한국 최고기록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세운 1m77。

1m68·5cm의 키와 56kg의 체중으로 높이뛰기선수로는 좋은 신체조건을 갖춘 金希宣은 장래가 크게 촉망된다는것이 육상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현재 이화여대 체육과 1년생으로 서울체고를 나왔다。높이뛰기는 서울女中 2년때부터 시작했다。日本 후꾸미쓰·히사요의 세계기록 1m93을 깨겠다는것이 金希宣의 포부。金仁中씨(55·의류업)의 2남4녀중 장녀다。

## 프로야구 席

### 選手계약금에도 원천징수、혜택없어
### 金東燁감독 趙昌秀코치 不和풀릴지

◇金東燁감독

◇趙昌秀코치

○…프로야구선수들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구단측의 주장과는 달리 프로야구선수들도 적잖은 세금을 물어야 할 것 같다。

세무당국은 최근 프로야구선수들이 받는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는 12.5%를 원천징수키로 하고 계약금이 4백만원을 초과할때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도록 조치。

연봉에 대해서도 자유직업소득으로 갑종、1%원천징수를 하지말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만루홈런등을 쳐 경기를 역전시켰을 때에 받는 상금도、기타소득이나 자유직업소득으로 따져 세금을 물린다는것이 세무당국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구단측은 무거운 세부담이 프로야구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면서 프로야구가 정상궤도에 진입할때까지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할 것이라고호소。

○…金東燁감독과의 불화로 사임설이 파다한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의 趙昌秀코치가 『야구인으로 이제 태동한 프로 야구계를 떠나고 싶지 않으나 金감독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찾을수밖에 없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趙코치는 지난5일 三星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5대1로 패한후 혼자 光州에 남아 金감독과 대화를 갖지못했으며 그동안 외부접촉을 피하고 자중했으나 아직 자신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趙昌秀코치는 13일 선수단이 묵고 있는 서울 엠배서더호텔에 합류했으며 『金東燁감독과의 불화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태 타이거즈의 본거지인 光州의 야구팬들은 해태가 최근 연패를 거듭, 저조한 전적을 보이고 있는것이 팀내의 불화의 내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크게 실망하고 있다。

급 매

* 사진식자기 1 대 *

※일본제 샤켄 모델 Spica-K
※자판 3 개
※성능 우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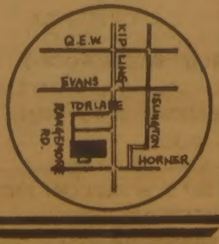
한국일보사 ☎ : 533-2361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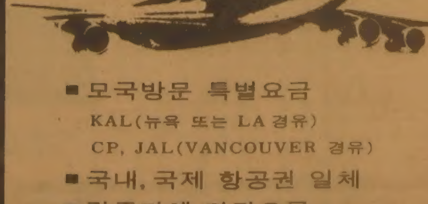
CASH & CARRY

| | |
|---|---|
| ● KISKO | $ 4. 19 |
| ● KISKO KID | $ 3. 25 |
| ● SNACK IN MOUTH | $ 5. 80 |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 한국일보 事件기자는 말한다

# 신문에 안난 現場

**<취재 放談>**

사건기자가 현장을 뛴다고 그 사건이 모두 기사화되지는 않는다. 기사가 폭주해 지면에 반영되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정보나 독자의 제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그 사건은 기사화되지 못한다. 큰 사건이 생겼다는 독자의 전화제보를 받고 현장을 가까스로 찾긴 했으나 제보내용과 사건내용이 전혀 달라 기사감이 안될땐 맥이 빠질수밖에 없지만 사건기자는 그래도 현장을 뛴다. 지난주는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로 사건기자들이 모두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바쁜 한 주였다. 바빴던 1주일을 되새기며 방담에 참석한 한국일보社 사회부사건기자는 다음과 같다.

▲方旼俊 ▲朴珍列 ▲鄭崇鎬
▲姜秉泰 ▲金宗來 ▲鄭在龍

## ■국교생 음독

▲A＝지난주엔 한 독자로부터 큰기사가 될만한 제보를 받고 달려갔다가 헛걸음질을 한 일이 있어. 『국민학생이 도둑누명을 벗기위해 결백을 주장하면서 음독자살을 기도했다』는 내용이었어.

잽싸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얘기가 전혀 달랐어. 사실은 그 학생이 담임선생님의 캐비닛을 뒤지고 물건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어. 담임선생님이 부모에게 『지도를 잘해달라』고 학생에 집에 가서 말하자 겁을 먹은 학생이 그만 음독을 한거야. 아무리 따져봐도 담임은 책임이 없었어.

▲B＝경제지 기자들이 바탐찾는 것도 조심해야돼. 지난주 토요일 큰일날뻔했어. 치안본부에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서 사무관2명을 구속한 일이 있었어. 야간영장을 체크하다가 보게됐지.

그런데 미리 와있던 C지 기자가 『별거 아닌데 그냥 가지. 액수도 적고 숫자도 적은데…』라며 자꾸 가자는거야. 그래도 예감이 이상하고 공무원범죄여서 메모해 송고했지. 그런데 집에서 C지를 보고 놀랐어. 시커먼 컷까지 매 중간머리기사로 보도한거야.

나중 알아보니 C지의 담당기자가 낮에 기사를 취재했고 밤에 우리가 체크하는지를 알아보라는 지시가 그쪽 야간기자에게 떨어졌었어. 내가 체크를 하자 C지 야간 데스크에게 통고됐고 그래서 머리가 중간머리로 바뀐거야.

## 安全사고냐 誘拐냐로 혼란

▲C＝11일하오 城北구三仙동1가 혜화성결교회 마당 수세식화장실 정화조에서 3개월전 실종된 교회부속 유치원생이 부패한 시체로 발견된 일이 있어.

당시 부모들은 아이가 집근처에서 놀다가 실종되자 전단 3만여장을 뿌리고 현상금까지 걸고 찾다가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다니던 유치원 정화조에서 발견된 거야.

유치원 마당의 정화조 뚜껑이 쉽게 열리도록 방치돼 사고가 생긴건데 어처구니 없게도 C지에서는「유괴살해 가능…」으로 보도하더군.

▲D＝최근 잇따라 한국일보에 특종을 빼앗긴 나머지 다급해져 저지른 실수겠지.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잦은데 그때마다 부모들이「유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보도진이나 경찰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많아졌어. 부모들의 심정이야 이해가 가나 그보다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부모는 물론 사회전체가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어.

<삽화·權大雄>

## 국제전광代表 자수케한 特種보도

## ■夫婦싸움 放火

▲E＝거액의 사채를 빌어 쓰고 잠적했던 국제전광대표 李泰永씨(61)사건은 한국일보 기자 특유의 끈질김이 얻은 특종 기사였어.

▲F＝채권자들로부터 13일 하오2시 국제전광본사에 모인다고 각 신문사·방송국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취재할 대상자가 없었어. 3시간 가까이나 애를 먹은 다른 사기자들은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버렸지.

다음날 아침 한국일보11면 머리기사로 보도되자 그제서야 다른 기자들이 놀라서 취재에 나섰고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어.

기사가 보도된 14일하오 李씨가 자수, 피해자들의 조바심이 가라앉았지만 회사측에선『한국일보가 너무 크게 보도했다』고 불평하는 눈치였어. 李씨의 자수결심에 우리 기사가 기여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C＝14일 새벽5시께 鍾路구梨花동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인이 화김에 이불에 불을 질러 남편과 본인, 그리고 3살난 딸이 중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인의 귀가시간이 늦다고 남편이 트집을 잡아 밤새 싸우다 부인이 불을 지른 것인데 남편은 집에서 놀고 있었다니 부인에게 동정이 가기도 하는 사건이었어.

## 經理양 "위서 먹는데 나라고…"

## 離婚女, 재결합 여의치않자 自殺

▲B＝마을금고사건이 또 터졌어. 14일 江西경찰서는 新月1동 마을금고 이사장 鄭旭采씨(40)와 경리책임자 崔善禮양(23)등 2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어.

鄭씨는 77년 마을금고 이사장에 취임, 79년부터 가입자의 예금을 장부에만 기입하고 빼돌리는 수법으로 2백여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횡령, 부동산투자에 써왔대.

崔양은 2천9백여만원을 횡령했는데 경찰조사로는 鄭씨가 예금을 유용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돈을 빼먹었다는 거야.

처음엔 어머니, 오빠, 올케등 가족7명의 명의를 빌어 위장대출하는 수법으로 7백만원을 빼돌렸어. 그후엔 鄭씨명의의 당좌수표를 2천2백여만원어치 발행해 부동산업자인 오빠 사업에 써온 것으로 밝혀졌지.

경찰은 마을금고 자체감사에서 거액이 모자란다는 진정을 받고 은밀히 내사, 처음엔 鄭씨만 불러 수사했으나 鄭씨가『나는 모른다. 崔양이 혼자 했다』고 잡아떼 崔양까지 불러 대질시킨 끝에 鄭씨가 횡령한 액수가 더 많음을 밝혀냈지.

# 신문에 안난 現場

## 3백만원 현상금 붙자 屍體발굴 나서

## "強盜班"이 된 高校 한반학생 6명

## 他校生3명과 영사기·필름 훔쳐 鑑賞

### ■책가방에 私服

경찰이『남자 친구와 탕진한 것이 아니냐』고 崔양을 다그치자 崔양은『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다 이사장이 거액을 빼돌려도 탈이 없는것을 알고 나도 했다』고 진술했어. 경찰은『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도 흐리다』면서 빗나간 효도를 개탄하기도.

▲E＝청량리서에 검거된 고교생강도단은 한심했어. 고교생9명이 대낮에 가정집에 들어가 9회에 걸쳐 3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거야. 모두 Y공고, H공고 야간부 3년생들이더군.

이들은 가방속에 책1~2권과 사복을 넣고 다녔는데 장발이니 사복만 갈아입으면 언제든지 성인처럼 행동할수 있었어.

이들중 6명은 Y공고 같은 반이어서 형사들이 그 반을「강도반」이라고 부르더군. 이들은 한집에서 강도짓한 영사기와 필름을 강도짓해서 얻은 셋방에서 소주를 마셔가며 감상했대. 한사람이 30~50만원씩을 2달 사이에 썼는데 대부분 옷을 사입거나 고고클럽에서 유흥비로 썼다는 거야.

▲F＝13일 새벽 江東구둔촌동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李모씨(29)의 사연은 참으로 인간적이었다는 평이었어. 李씨는 남편과 4년전에 합의 이혼했으나 재혼한 남편집에 자주 찾아와 재결합하자고 졸랐대. 헤어졌지만 그리워 찾아가곤 한 李씨의 경우를 보면「會者定離, 去者必反」이란 말이 어울릴지 모르고 이혼한 사유야 어떻든 안됐다는 생각이 앞서.

▲A＝崔신부사건을 취재하고 이동독자부취재를 마치고 조금전에 귀사했어.

▲B＝아까 편집국에 들어오니 A형 꼴이 꼭 장돌뱅이 같아. 괴나리 봇짐대신 백을 오른쪽 어깨에 메긴 했지만…

▲A＝밤새 고속도로를 달려 釜山에 가 7박8일동안 남들이 생각하기엔 잘 놀고 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고생이 말이 아니었어. 「부산지하철도 초비상」「해운대에 유령아파트」등 굵직한 기사 10여건을 취재하느라 지리도 잘 모르는 부산시내는 물론 경남지역을 몽땅 훑었지.

▲C＝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건은 우리사건기자를 그로기상태에까지 몰아 넣은 큰 사건이었지만 그 뒷얘기도 무궁무진해.

▲D＝사고대책본부에선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나도록 희생자가 없다고 했지.

한국일보에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의 말에따라「3명사망」의 기사가 보도되자 뒤늦게 작업중이던 인부의 인원점검을 실시, 희생자가 9명이라고 밝혔어.

### ■'또 확인하자'

▲E＝복구작업에 따른 일화도 많아. 시체발굴작업에 세퍼드 2마리가 동원되기도 했으나 세퍼드인들 10여m 깊이의 흙 밑에 깔린 시체를 찾아낼수 있겠어. 시체발굴에 현상금이 붙기도 했어. 시체를 묻어둔채 복구작업을 할수 없어 3백만원의 현상금이 붙자 인부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더군. 이때문에 대책본부에서는 인부들에게 위험한 작업을 못하도록 당부하기도 했어.

▲F＝현장부근 통제구역에서 거액의 금붙이 도난사건이 신고돼 경찰이 혼이 나기도 했지. 사고 다음날인 9일 峴底동에 사는 부자운명상담소 골상밑에 감춰두었던 금 1천2백20돈쭝 5천7백여만원어치가 없어졌다는 거야.

주인 白龍鉉씨(50)는 붕괴사고가 나자 금붙이도 꺼내지 못하고 대피했다가 하루가 지난뒤 확인해보니 없어졌다고 말하더군.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白씨가 그만한 금붙이를 가질만한 여유가 없음을 밝혀내 도난사고수사와 허위신고여부를 함께 수사하고 있어. 허위신고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白씨를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 수사를 펴고 있지. 경찰조사결과 白씨는 월세10만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으며 80만원의 일수돈까지 쓰고 있고 작년엔 영세민혜택까지 본 사람이라는 거야.

결과야 두고 보아야 안겠지만 경찰이 허위신고로 보고 있는데 대해 白씨는 금붙이의 출처를 대지 않으면서도 변호사까지 선임해 놓았다는 거야.

▲A＝사건 당일 서울판에 한국일보만 1명사망, 3명 실종이라고 보도해 다른 신문을 앞질렀어.

▲C＝다음날 희생자가 10명으로 늘었지만「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부훈이 있었기에 얻어진 것이었어.

병원에 입원한 부상자를 만났는데『동료 인부 1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것을 보고 탈출했는데, 곧이어 흙이 무너졌다』고 말하더군. 서울시 발표와 인부의 말이 달라 고민하다 사망자가 있다는 쪽으로 밀었지. 현장 취재에 나선 기자들과 심야 구수회담끝에「1명 사망, 3명 실종」을 밀고 나가 다른 신문을 앞지르는 결과가 됐어. 역시 현장을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뛰면 그만큼 생생하고 정확한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 한국일보 事件기자는 말한다

### ■복구 寸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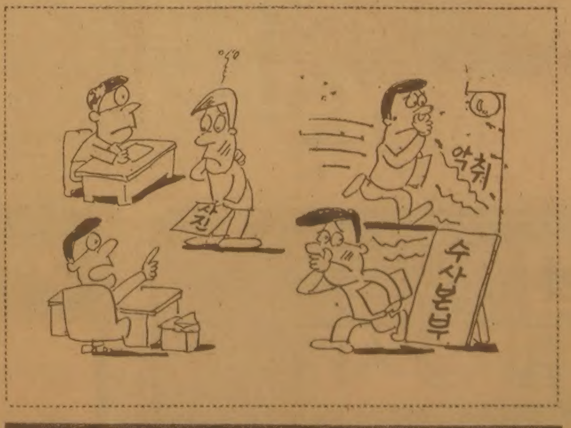
▲A＝상수도가 끊기자 수사본부가 차려진 파출소도 악취가 풍기더군. 화장실청소를 못해서 나는 냄새같았어.

▲E＝붕괴사고로 상가가 철시하고 주민들까지 대피, 송고하는데도 애를 먹었어. 현장 가까운 곳에 J서점의 전화를 빌어 썼는데 20~30분씩 전화통에 매달려 있어도 젊은 주인이 불평 한마디 안하더군. 미안해서 책한권씩을 팔아주기도 했는데 다른회사 기자들보다 쉽게 전화를 이용한 셈이야.

▲C＝다른 사 기자들은 취재차를 타고 멀리까지 가서 전화 송고를 하더군.

▲B＝대책본부는 5일정도면 복구가 끝날 것이라고 발표했었는데 시체발굴이 지연되고 상수도관이 터져 물이 차 지반이 계속 약해져 철제 빔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 지연되고 있지.

▲F＝버스를 끌어 올리는데 30톤 크레인이 동원되고 크레인을 끌어 올리다가 불이나 소방차가 동원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어. 사망한 金漢奎씨(21·강제공)의 형은 사고 다음날인 6일 상오 신사복차림으로 현장까지 왔다가 접근이 안돼 집에 돌아가 작업복을 갈아 입고 노무자틈에 끼어 현장에 들어갔더군.




## 붕괴待避로 금붙이 百냥 도난 소동

## 上水道 끊기자 搜査本部서도 악취

## 버스·크레인 인양에 불나 消防車도

### ■사진 1장

金씨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시체4구를 발굴했으나 동생은 끝내 못찾고 대책본부[illegible] 흥분했어.

▲D＝실종자 가족들은 삼호측이 인부들을 쓰면서 인적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흥분했는데 이 문제점은 하청을 주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생긴 문제야.

▲B＝사망자 사진을 구하느라고 혼났어. 江東구鳳川동의 金容奭씨(39·착암공)를 찾아서 동사무소에 물었더니 이사를 했어. 이사를 간 千戶동에 들렀더니 직권말소가 되었고.

사연을 알아보니 부인과 이혼, 혼자 살아 주민등록지만 옮긴후 나타나지 않은거야. 부인 金씨를 만났는데 사진첩을 보여주며 金씨사진을 모두 찢어 버렸다는거야.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

실패하고 회사로 들어오다 龍頭동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 金漢奎씨의 사진을 구하기위해 龍頭1동 사무소로 갔지. 龍頭1동 11통2반이란것만 알고 통반을 뒤져 정확한 주소를 안다음 반장을 모시고 집으로 갔으나 가족도 없고 사진도 없었어. 포기하려고 생각했는데 반장 아들과 金씨가 친구사이여서 동산갔을때 찍은 사진을 겨우 한장 구할수 있었어. 사진 2장 구하려고 3시간 가까이 뛴 끝에 겨우 1장을 구해 회사로 들어오니까 데스크에서『사진 하나 제대로 못구하는 기자가 무슨 사건기자냐』고 호통이었어.

『뛰고 또 뛰어도 모자람다』고 혼자 반성을 하기도 했지만 사진1장 구하느라 3시간을 뛰고도『잘했다』는 말한마디 못들으니 온몸이 물먹은 솜덩이처럼 무거워지더군.

<기록·정리 鄭元久기자>

# 거지 돌보는 「거지神父」

# 病든者 모아 「꽃동네」이뤄

## 몸으로 「사랑」 實踐하는 吳雄鎭신부의 信仰과 奉仕

병들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사랑의 꽃씨를 심는 신부가 있다. 「거지 신부」로 불리는 無極천주교회의 吳雄鎭신부(39). 꽃이 피는 마을이면 어디든 꽃동네가 아니랴만 얻어 먹을 힘조차 없어 거리에서 죽어가는 걸인들을 위해 「꽃동네」를 일군다. 보상금을 주면서까지 걸인들을 받아들이고 겨울이면 동사자를 찾아 헤매는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한국판 마더·테레사」를 찾아 본다.

◇吳雄鎭신부는 『주님의 말씀을 설교로만 전하지않고 몸소 실천하는것이 참된 사제상』이라고 말한다.

금의 산지로 이름난 충북 陰城군金旺읍無極리. 「무기」로도 불리는 無極은 이제 폐광촌이 된지 오래다. 노다지의 꿈을 안고 찾아들었던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버력(폐석)을 뒤적이며 살아가는 산골마을. 「꽃동네」란 이름을 붙이기엔 좀 생뚱한 마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지명처럼 끝없이 충만하다. 마을에 들어서니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우리신부 吳신부 거지신부/죽어가는 거지들을 품에 안아 꽃동네로 인도하네/사랑의 꽃, 동산을 이루어…』

성가리들이다. 노랫소리가 퍼지는곳에 無極천주교회 옥탑의 십자가가 하늘에 닿아있다. 「거지신부」는 그 십자가 아래서 걸인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얻어 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손 벌릴 힘조차 없는 병든 영혼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가진것 없는 이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인간답게 거두어주시고 영생의 나라로 초대하소서…。』

기도를 듣고있는 걸인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모두 39명. 어린이를 제외하곤 눈만 뜨고 있을뿐인 폐인들이다. 결핵환자, 정신이상자, 알콜중독자, 절름발이, 귀머거리, 장님, 발가락이 썩어들어가는 사람, 대소변을 받아내야하는 사람…온갖 불구자가 다 모여있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기동조차 어려워 다리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걸인들이다.

吳雄鎭신부의 하루는 이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시작돼 그 일로 끝난다.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빨래를 한다. 사제생활 6년을 걸인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하루같이 보냈다.

『동냥하던 걸인들이 병들면 길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습니다. 이들의 살아있는 마지막 육신을 쉬게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부활의 집」이 꽃동네입니다.』

### 주위反對 무릅쓰고 온갖廢人 聖堂에 수용

### 함께자고 수발들며 6년을 하루같이 보내

그가 걸인들의 아버지가 되 「꽃동네」건설을 구상한 것은 사제생활을 시작한 76년부터다. 光州대전신학교를 졸업, 淸州수동천주교회 보좌신부를 거쳐 그해 9월 無極천주교회에 부임한 吳신부는 어느날 다리 밑에서 崔貴童(66)이란 어상한 걸인을 만났다.

정상인이 아닌 崔노인은 구걸을 하면서도 돈은 절대로 받지않고 남은 밥만을 얻었다. 아파 누워있는 걸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착한 걸인이었다.

이를 본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51년 피난대열에서 부모를 잃고 울부짖다 어디론가 사라져간 같은 나이 또래 소년의 모습을 지우지못하고 성장한 그는 「崔노인을 못본체한다면 사제가 이 세상에서 할일은 무엇인가」하는 회의에 빠졌다.

그날로 다리밑에 움츠리고 있는 걸인 18명을 사제관도 없는 교회로 데려왔다. 거의가 죽음 일보전의 폐인들이었다. 이들을 손수 목욕시키고 헌 옷을 얻어다 입혔다.

환자는 응급치료를 하고 중환자는 자신이 기거하는 단칸방에 재웠다. 나머지에게는 성당 한구석에 잠자리를 마련했다. 방이 없어 그도 걸인들 틈에 끼어 자야했다. 잠을 자다가도 신음소리가 들리면 일어나 간호하고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렸다.

다음날부터 그는 인근의 걸인들을 찾아나섰다. 사경을 헤메는 행인이나 걸인을 데려오면 보상금(5만원)을 주기로 했다. 겨울이면 동사자를 찾아나섰다.

신성한 성전이 걸인들의 수용소가 되자 이를 못마땅해 하는 신도도 간혹 있었다. 예배마다 그는 참사랑이 필[illegible]가를 가르쳤다.

『사랑의 본질은 정신의 불입니다. 마음으로만 보이죠. 모든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있읍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초에 지나지 않지만 신과 만인에대한 사랑은 삶의 시초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바탕이요 현주소입니다.』

그는 토실토실한 99마리의 양보다 굶주려 쓰러진 1마리의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사제상이라고 믿고있다. 지금까지 그의 품에 안긴 걸인은 80여명. 간혹 새삶을 찾아 떠난 사람도 있지만 30여명은 그의 종부성사로 눈을 감았고 현재 39명이 그의 보살핌으로 살아가고있다.

### 소식 알려지자 支援답지…收容幕 세우고

### 부하잃은 거지 대장의 殺害협박 받기도

吳신부의 사랑의 손길은 걸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병들어도 치료비가 없는 가난한 이웃, 無極을 지나다 갑자기 병이 나 쓰러진 사람들을 살린 것이 70여명에 이른다. 그렇다고 그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 병원이나 들이밀고 치료를 부탁한다. 그래서 淸州도립병원이나 水原 성빈센트병원등에서도 「거지신부」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걸인들을 불러 모으니 여기저기서 반대의 소리가 높게 일더군요. 전국의 걸인들이 다 모여들어 거지촌이 되면 어떡하느냐는 반대였어요. 한편 거지대장은 부하를 잃은 앙갚음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가 인근의 걸인 18명을 데려 왔을 때였다. 부하들의 구걸로 편안히 먹고 살아가는 대장걸인이 위자료 1백80만원(1인당1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吳신부는 거지대장에게 방한간을 마련해주고 두차례에 걸쳐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몇달이 지나자 거지대장은 다시 돈을 요구했다.

『더 이상 살아 갈 수가 없으니 여행이나 하고 죽겠다는 거에요. 그때 마침 응급환자가 있어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水原에 갔다와보니 쓰레기장에서 음독자살 했더군요. 유서를 남기고…。』

유서에는 「내가 吳신부 당신한테 졌소. 당신을 죽이려고 4년간 칼을 품고 다녔는데 주위에서 의인이라고해서 차마 찌르지 못했소. 남은 형제(걸인)들을 끝까지 잘 돌봐주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사제로서는 참으로 가슴아픈 죽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다른 걸인들과 함께 살게 하려했는데…』

吳신부는 거지대장의 죽음은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을것 같다고 말한다.

거지대장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그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꽃씨를 뿌리는 것으로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 우선 1차사업으로 걸인들을 수용할 집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지촌이 웬말이냐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설득, 인근 용담산기슭에 움막이나 다름없는 판잣집을 짓기 시작했다.

수중에 있는 돈(사재)이라곤 1천4백원뿐이었지만 손수 벽돌을 찍고 폐가의 서까래와 헌 문짝을 나르자 여기저기서 도움이 밀려왔다. 忠州비료에서는 자동차를 지원했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시멘트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해서 한달만에 판잣집 3채(방 7개)가 세워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吳신부의 일을 돕겠다고 자원해온 사람도 있었다. 趙美子(38) 李貞淑(25)순마리아양(23)과 외아들인 鄭용범, 金요셉군, 金아셀나수녀(49)가 평생을 봉사하겠다며 자원해와 걸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또 城南자선병원 간호과장도 걸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들의 식량 마련이 여간 힘들지 않아요.』

본당 4백여명의 신도가 거두는 헌금은 1주일에 5만원 정도. 서울의 큰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내는 헌금에 지나지 않는 돈으로는 교회살림도 어렵다. 그래도 吳신부는 용케도 걸인들을 먹여 살린다. 「5병2어」의 기적(보리떡 5개와 물고기2마리로 5천명을 먹여 살린 예수의 기적)을 몸소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사업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루죠. 주위의 사랑이 있을때 성공을 거둘수 있읍니다.』

이같은 주위의 도움에 용기를 얻은 吳신부는 걸인들의 육신과 영혼이 쉴 수 있는 「꽃동네」건설에 나섰다. 「꽃동네」는 그가 짓고 있는 걸인 수용소의 이름. 지난 3월 불하받은 국유림 5천여평에 2백50평의 건물을 세워 죽어가는 걸인들을 수용하고 그들이 잠들 묘역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지 마련에만 2년이 걸렸어요. 재정도 넉넉치 못하지만 그보다는 아무도 땅을 팔려하질 않아요.』

그는 2년간이나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정하고 설득한 끝에 땅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들려준다.

「꽃동네」는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올해안에 30명을 수용하고 점차 늘려 1백명의 걸인을 수용할 계획이다. 재정은 현재 모집중인 「꽃동네회」회원들의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목표는 1억원(회원1만명). 회비는 1구좌당 월1천원인데 3월말 현재 2천3백명에게서 2천여만원을 모았다.

『꽃동네는 결코 사랑이나 활동능력있는 걸인들의 수용소는 아닙니다. 얻어먹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영생을 준비하는 집입니다.』

「꽃동네」는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 꿈의 동산이기도 하다.

충북淸原의 산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9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한달뒤에는 집의 화재, 누이동생의 죽음이라는 3중의 불행을 겪었다.

6·25때 피난대열에서 부모 잃은 소년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란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치가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 집안이 가난해 중학진학을 못한 그는 통신강의록으로 중학과정을 마치고 신문팔이·구두닦기로 고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2학년때의 어느날, 大田 大興천주교회 吳基先신부의 강론을 들은 그는 정치가의 꿈이 부질없음을 깨달았다. 정치가보다 사제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있다고 생각했다.

◇눈만 뜨고 있을뿐인 폐인 39명을 돌보고 있는 거지신부· 吳雄鎭신부가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 그동안 품에 안겨 죽어간 乞人만 30여명

### 현재 39명 보호…백명까지 받을계획 세워

이때부터 사제에 뜻을 두고 봉사활동을 폈다. 大田을 중심으로 자신이 고학생이면서도 다른 고학생들을 돕고, 윤락가로 빠져드는 가출 소녀선도에 발벗고 나섰다. 사병으로 군복무중에는 부대가 있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부강에 있는 나환자촌을 찾아 그들의 벗이되어주었다. 이같은 사랑의 봉사를 거쳐 69년 신학교에 입학한 그는 대학에서도 「개미회」라는 봉사단체를 조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사제는 만인의 아버지요, 성령의 도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땅에 제자들을 보내며 병든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도와 주라고 하셨읍니다.

주님의말씀을 말(설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된 사제상입니다.』

그는 일부 교회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물질을 추구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충청북도가 79년 집계한 한해 도내 행여사망자는 1백69명으로 나타났읍니다. 통계에 들어가지않은 사망자도 많겠지요. 그렇게 떠도는 영혼들을 위해 사제의 본분을 다할뿐입니다. 두번째살고있는 생명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교재학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뇌진탕으로 쓰러졌다가 7일만에 깨어난일이 있다.

『그때 하느님께서 살리신 것은 이 많은 짐을 지게하려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뜻에 따라 살고 있다고 했다. 걸인들을 돌보는 외에 주말이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도 하느님 사업중의 하나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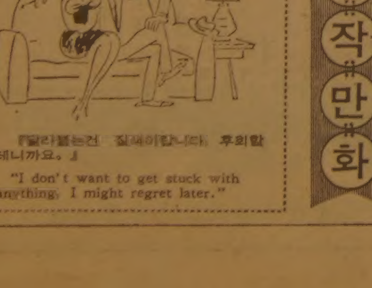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해결해야 합니다. 사회의 혼탁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희생정신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복지사회건설도 정부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본 일은 없어도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만을 위한 기도는 잊지 않는다는 吳雄鎭신부. 『앞으로 그들을 얼마나 진실로사랑하느냐가 문제』라며 말을 맺는다.

글 李亨基<한국일보 文化部기자>

사진 崔東完<한국일보 寫眞部기자>

## 海外걸작漫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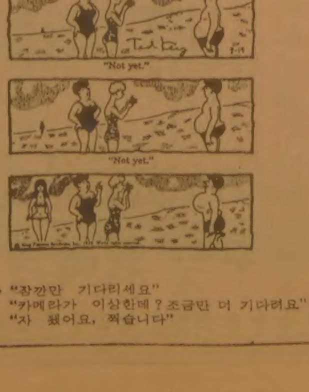
『달라붙는건 질색이랍니다. 후회할테니까요。』

"I don't want to get stuck with anything. I might regret later."

## 海外 걸작만화

◇ "부인, 휘발유를 넣으시려면 이녀석 좀 어떻게 하시죠"

◇ "[illegible]께선 네가 이 사과들을 먹지 않기를 바라셨다구"




◇ "잠깐만 기다리세요"
"카메라가 이상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요"
"자 됐어요, 찍습니다"

◇ "아, 참으로 편한 자리지"
—<요가사>

##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ACHE ALL OVER.**

필자의 강의를 듣고 있는 분에게 「몸살이 났다」를 영어로 해보라고 하였더니 I have a bodyache. 라고 하였다.

「두통이다」를 I have a headache. 라고 하고, 「치통이다」를 I have a toothache. 라고 하니, ache를 붙여서 bodyache 라고 한 것은 이해는 간다. 미국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I ache all over. 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미국인들이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이 왕왕 있다. 「커피 한 잔 합시다」를 Let's drink a cup of coffee. 라고 하지 않고 have를 넣어 Let's have a cup of coffee. 한다든지 「시간이 많다」를 I have much time. 이라고 하지 않고 I have a lot of time. 이라고 하는것도 바로 그들의 표현 방법이다.

이러한 독특한 용법들은 따지고 들기 이전에 외워서 숙달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아프다」란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은 교포가 의사한테 부위를 가리키면서 Here sick.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경우는 it aches here. 혹은 It hurts right here. 라고 하며, 의사가 「어디가 아픈가?」라고 물을 때는 What's the matter with you? 혹은 What seems to be the trouble? 이같이 한다.

A : Hi, Bill. You're looking very good.
B : Yeah, I joined a health club to keep in shape.
A : Do you exercise every day?
B : Yes, I've been jogging for over 4 months now.
A : I just started. I ache all over.
B : Yeah, I know. But it goes away.
A : 안녕하세요? 빌. 얼굴색이 참 좋습니다.
B : 네, 건강을 위해서 헬드 클럽에 들었지요.
A : 매일 운동을 합니까?
B : 네, 지금까지 넉 달 이상 자깅을 하고 있지요.
A : 나는 이제 자깅을 시작했더니 몸살이 났읍니다.
B : 그럴겁니다. 그렇지만 곧 괜찮아집니다.

※look good : 건강하게 보이다.
keep in shape : 건강을 유지하다.
Ex. I keep in shape by jogging. 나는 자깅으로 건강을 유지한다.
go away : 사라지다.
jogging : 천천히 뛰기, 미식 발음은 조깅이 아니라 「자깅」이다.

**LET'S GET TO THE POINT.**

이야기의 핵심을 말하지 않고 다른 말만 하는 사람에게 「요점을 말해 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라고 할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미국인들은 Let's get to the point. 라고한다.

횡설수설하는 상대방에게 「말의 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I don't see your point. 하면 될 것이고, 「그의 말에는 요점이 없다」는 There's no point to what he's saying. 이라고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자기의 요점을 주지시키는 경우는 My point is~의 문형을 사용하여 논리를 전개해 나갈수 있다. 「내가 말씀드리고싶은 요점은 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이오」 My point is the price is too high. 「그녀의 요점은 당신에게 흥미가 없다는 것이오」 Her point is she's not interested in you. 이같이 사용된다.

A : Mr. Brown, do you feel I've done a good job for the company?
B : Of course, Mr. Lee. You're a valuable employee.
A : I'm glad you think so. I enjoy working here.
B : Let's get to the point, Mr. Lee. Is there something on your mind?
A : Yes, Mr. Brown.
B : Then let's hear it.
A : 미스터 브라운, 제가 회사를 위해 일을 잘 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B : 물론이죠, 미스터 리. 당신은 훌륭한 사원입니다.
A :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B : 미스터 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A : 그렇습니다. 미스터 브라운.
B : 좀 들어 봅시다.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 連載소설

#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71

### 지난줄거리

미나의 급한 메모를 받은 홍찬은 하루종일 다혜를 훔칠 궁리만 했던 유정환을 찾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은주 누나를 훔치고도 싶었다. 계집애를 벗기려고도 했다. 그러나 겨우 참아냈다. 미나는 한여자를 구해달라고 사정했다. 이상한 목욕하는 여관에 잡혀있는 미스 황이란 여자의 딱한 하소연을 듣고 홍찬은 그 음흉한 소굴을 습격할 궁리를 했다.

그런데 목욕탕에 대해 별로 아는게 없었다. 그러나 내 호기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사람 사는 땅엔 별의별 것이 많기 마련이지만 사내들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업종이 자꾸 느는것은 결국 쾌락의 도구가 많아진다는 것인지 모른다.

여관의 위치나 여관에서 일어나는 작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아는 녀석을 찾아냈다.

『프로처럼 보이려면 뒷문으로 들어가. 앞문으로 들어가면 호구잡혀. 방값만 주고 나머진 모두 후불이다.』

『구체적으로 좀 알자.』

『나도 허리 휘어가며 배운거다.』

『잔소리 말고 말해.』

『내가 그런데 숙맥이라는건 말도 안돼. 이해할수가 없어서 그래.』

『나야 말로 도덕 그 자체지. 도덕 공부할 필요없어.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천당은 그냥가게 돼있어.』

나는 괜히 모르는 체했다. 녀석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몇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다.

『방값 8천원, 비디오값 5천원. 그리고 샤쎄값 2만원. 이게 기본인데 비디오는 봐두 좋고 안봐도 그만이다.』

『어떤 녀석이 그만하게 살아있는거 보면 장하다. 이 담에 느이 마누라한테 되도록 비밀을 지켜보느라고 악은 쓰겠다만… 나도 선량한 사람인지라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다.』

『고자질해서 출세 못한 사내를 보지 못했다. 넌 출세 하나는 보장된 인물이다.』

『진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다.』

내 말이 끝나자 녀석은 손을 흔들며 저만큼 걸어갔다.

『재미 많이 봐라.』

녀석이 익살맞게 던진 말이었다.

나는 어슬렁거리며 Y여관 뒷길로 들어섰다. 속사정은 빤히 알면서도 선뜻 내키지 않는 걸음이었다.

여관 뒷문으로 들어섰다. 사십대의 여자가 웃는 얼굴로 나를 앞세우고 이층으로 올라갔다.

『아줌마, 미스 황 좀 불러주쇼.』

나는 일부러 건들거리는 동작으로 말했다. 이런 곳일수록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냄새를 피울 필요가 있었다.

『단골이 무슨 재미유? 아가씨들 많은데.』

『조강지처가 젤 난거 아닙니까.』

나는 또 한번 능청스럽게 나갔다.

『칼부림 나겠구려.』

『딴 서방이 왔나요?』

『눈치 하나는 댓길이시네. 눈치빨라야 절에 가서 고기 얻어먹는댔수.』

사십대 여자도 보통은 넘었다.

『어떻게 빼돌려 보죠.』

『금방 들어갔는데…기다리겠수?』

나는 그 순간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돈을 두배쯤 써야 된다고 생각했다. 미스 황은 기다리기엔 좀 지리할 것 같았다.

『그럼 말 잘하는 애 보내주쇼.』

『재미있는 양반이네. 몸씨름하러 온게 아니라 말장난하러 왔나.』

『시간 좀 끌어얄 거 아녜요.』

『젊은 사람이 보통 아니셔. 내 쩍찍 달라붙는 아가씰 보내드리지.』

나는 천원짜리 두 장을 여자에게 내밀었다. 여자는 방문을 열어주고 커튼을 내렸다.

『다른 건 없수?』

『테이프 다른 거 들어왔어요?』

『맨날 그거지 머.』

『만화책 보는 게 낫지 그걸….』

『심심할까봐 그렇지.』

아예 나이 어린 것을 알았는지 반말투로 나왔지만 싫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런 곳에 살면 심심치는 않겠네요. 재미있는 꼴도 실컷 볼테고.』

내가 능치고 들어갔다.

『아휴, 속 모르는 소리 말아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유?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냥 이것도 재미다 하고 사셔야죠. 맥주 하시겠어요?』

『나 술 못해요.』

『그럼 맥주 두어병 하고 안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참, 아주머니도 콜라라도 한병 드세요.』

나는 이렇게 선심을 쓰고 나갔다.

여자의 표정은 대번에 부드러움으로 찼다. 친절한 대접을 받기 어려운 장소에서 이렇게 작은 친절은 큰 효과를 보는 것이었다.

『재미 없겠지만 내 비디오 넣어드릴테니 보슈.』

『고맙습니다.』

능청 떤 것이 주효했다. 꽤 닳고

**반반한 얼굴과 팽팽한 몸뚱이가 어디 밥먹여 줍니까**

**고작 비디오 정도 보고 흥분할 형편이면 살맛 나게요**

닳은 사내처럼 구니까 오천원 짜리 비디오를 공짜로 보게 되는 것이었다.

침대 머리맡과 발치께엔 대형 거울이 매달려 있었다. 아마 나체의 여자를 마음껏 바라보라는 것 같았다. 방엔 커다란 목욕탕이 딸려 있었다. 지저분하진 했지만 화려한 몸놀림이 연상되는 플래스틱 의자와 욕탕이었다.

여기가 이른바 변태여관이라는 곳이었다. 보통 여관과 다를 바가 없었다. 여자가 들어온다 해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여자와의 거래방법이 다르다는 것 정도였다. 이런 곳이 서울에 여러개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곳이었다.

텔리비전 스위치를 넣었다.

이미 시작한지 오래된 것 같았다. 화면 가득히 음탕한 장면과 거친 호흡과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어찼다. 여자의 비명소리는 영어일 뿐 그 표정이나 음탕한 장면은 동서양을 구분할 수는 없을것 같았다.

양코배기들이 발가벗고 지랄맞게 노는데도 일등국민인 건 확실했다. 별 해괴망측한 짓까지 얼굴 내밀고 해댔다. 양코배기 조상들을 만약에 우리나라에 데려다 놓았다면 음탕죄로 목에 칼 씌웠을 건 당연했다. 점잖떠고 자란 것들이라서 그런지 닥치는대로 빨아먹으려고만 들었다.

노크소리가 났다.

『들어와.』

계집애가 생긋 웃고 들어왔다. 실크 원피스차림이 잡았다. 맵시가 있는 스타일이었다.

계집애는 들고 들어온 가방에서 크고 작은 수건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고 욕탕으로 들어갔다. 뜨거운물과 찬물을 적당히 맞춰 틀어놓고 나와서 양담배 한갑을 내밀었다.

『임마, 이것도 인연인데 이름이나 알자.』

내가 가볍게 어깨를 때렸다.

『미스 주예요.』

『이름 없어?』

『집에다 놓고 다녀요.』

『졌다.』

제법 이빨이 센 여자같았다. 얼굴이나 몸매가 보통 세련된 여자같지 않았다.

『몇살이냐?』

『스물 여덟.』

『공갈치구 있네.』

『몇살먹어 보여요?』

『스물 넷?』

『아이구 고마우셔라. 배꼽 빠지게 서비스 왕창 해드려야겠네.』

여자들은 나이를 내려보기만하면 애어른을 안가리고 좋아하는것 같았다. 계집애는 내게 담뱃불을 붙여주고 침대 모서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내 바지 끝을 건들였다. 건방진 놈이 그냥 있을리가 없었다.

『먹구 살만 하냐?』

내가 의뭉스럽게 물었다.

『먹구 사니까 이짓 하지.』

『이런 짓해서 먹고 사는 여자를 간사는거 못봤다.』

『옛날얘기책 보시는 거요?』

『궁금해서 그래.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까지 신경쓸거 없어요. 그거야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사니까요.』

보통내기는 아닌것 같았다. 계집애는 동위로 말린 치마를 가리켰다.

나는 조심스럽게 치마를 내려주었다. 실크 원피스 외에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다. 젖가슴이 팽팽하게 드러났다. 스물여덟살 먹은 여자치고 군살 하나없는 몸매였다. 뱃가죽이 조금도 늘지 않았고 엉덩이나 젖가슴이 조금도 늘어지지 않은 육체였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몸 가지고, 이렇게 예쁜 얼굴 가지고 왜 이런데서 썩니?』

『썩다뇨?』

『아깝다 이말야.』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몸이 밥먹여 주나요. 얼굴이 먹여 주나요.』

개똥철학이란 말로 표현하면 사는게 뭔지 아는 여자 같았다.

『저거 보고 아무렇지도 않니?』

나는 비디오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미 나는 옷 벗기가 부끄러울 만큼이었다.

『저 정도 보고 흥분할 정도면 살맛 나게요.』

이미 지칠대로 지쳤다는 육체의 잔해를 애기하려는 것 같았다.

『하루에, 손님 몇이나 오니? 평균 말야.』

『이 양반이 세무서에서 나오셨나? 왜 자꾸 그러죠?』

『그게 아니고…사는 게 신기해 보여서 그리는 거라니까.』

『목욕이나 해요. 일어나요.』

나는 엉거주춤 일어나서 옷을 벗었다. 계집애는 이미 나신이었다. 약간은 부끄러웠다. 꽤 당당하게 굴다가도 나보다 더 당당하게 나오는 여자 앞에 나서면 기가 죽게 되었다.

탕 속의 물은 적당한 온도였다. 계집애는 물을 뿌려 내 몸을 적신 뒤에 비누칠 잔뜩 한 수건으로 닦아 내려갔다. 나는 잠시 내가 이곳에 들어온 목적을 잃어버렸다. 욕망이란 그런 것인지 모른다. 쾌락의 끈은 풀어버릴수록 더 욱죄어 드는 것인지 모른다.

『머리 감을래요?』

계집애가 제 몸에 물을 끼얹은 뒤에 말했다.

『조오치.』

나는 탕 속으로 들어가 자라처럼 목을 길게 뺐다. 계집애가 샴푸로 머리를 두번 헹구어 냈다.

『린스는 없니?』

『정말 노시네.』

『임마, 이왕이면 다홍치마랬어.』

『머리털이 웃어요.』

나는 대꾸없이 웃었다. 계집애의 말솜씨가 보통은 넘는다 싶었다. 머리를 다 감겨준 계집애가 수건으로 온몸을 감싸듯 물기를 닦아 주었다.

비디오 화면은 다른 테이프였다. 아까 것보다 더 난잡스러워 보였다.

나는 침대에 길게 누웠다. 붉은 조명등만 남고 모두 꺼졌다.

『느네는 얼마나 차지가 가는 거니?』

계집애가 가슴으로 애무하면 괜히 숨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반반씩은 차지가 돼?』

계집애는 말없이 제 가슴으로 나를 감싸듯 몸을 유연하게 놀렸다.

『이거 퇴계로만 못하다. 소문이 짜해서 왔는데.』

『거기하고 같아? 질적으로 틀리다구요. 걔들이야 빤한 애들 아냐.』

『틀리긴 개뿔이나 틀려. 벗겨놓고 보면 그게 그거지.』

계집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혓바닥 공양으로 내 잔소리를 막으려는 것 같았다.

『미스 황 있지? 그 친구 어때 여기 있나?』

나는 눈을 감고 온 몸에서 스멀스멀 일어나는 쾌락을 제어하지 못한 채 자꾸 딴 소리를 했다. 쉽게 계집애한테 무너지기 싫어서 더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지금 오입질하러 온 거야? 조강지처 안부 물으러 온 거야?』

계 아귀차게 나왔다. 나는 될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물을 말졌다. 미나가 만약 이곳의 생리를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런 꼴을 하고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을지 모른다.

만약 다혜가 알게 된다면.

끔찍해서 더 생각하기 싫었다.

**지금 오입하러 온거야 조강지처 안부 물으러 온거야**

**퇴계로 계집은 별달라요, 벗겨놓으면 다 그게 그거지**

그녀는 혓바닥으로 나를 녹여 냈다. 나는 호흡거리며 녹아들어갔다. 그녀에게 지불한 현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 한테만 이렇게 구는 게 아닐 것이다.

나도 별 수 없는 동물이었다.

하나님. 눈을 감고 귀를 막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 그나마 제일 그럴 듯한 겁니다. 사람들이 몸 잡고 다닐 때야 어디 감히 이러리라고 생각이나 하겠읍니까.

하나님. 만약 이 쾌락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지구는 벌써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냥 두 눈 딱 감고 벌름벌름 웃고 마세요. 사람들이 뒤엉켜 사는 거 관심 두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 일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시죠. 동물들에게 하나님을 믿게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훨씬 현명할지 모릅니다. 동물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팔아서 부자되거나 하나님을 팔아서 제 배만 불리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숲 속에 조그마한 당굴 교회를 파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사이비 종교도 안생길 거고 자칭 하나님 비슷한 척하는 사기꾼도 안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믿어서 잘 되게 없어요. 인덕은 되게 없는 양반이죠.

핵무기나 성능 좋은 무기도 다 멧어 버려요. 그래서 옛날처럼 고작해야 말이나 타고 다니며 칼과 화살과 창으로 싸움질 하는 정도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지구는 평화가 옵니다.

다시 목욕탕에 들어가 샤워를 끝낸 나는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계집애가 담뱃불을 붙여주고 돌아서서 옷을 입었다. 아주 간단했다. 실크 원피스 하나만 걸쳤기 때문에 부잡할게 하나도 없었다.

『얘기 좀 할래?』

『무슨 얘길 하자는 거예요?』

『너, 진짜 좋아서 그렇게 죽는 시늉 한 거냐?』

『……』

계집애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한 표현이었다.

『내가 그 수에 넘어갔다만…진짜 얼마나 돼 차지가 되는 거냐?』

『그런 거 묻기 없기.』

『좋다. 그럼 이 여관 말고 묻기는 데 없니?』

『왜 없겠어. 너무 순진하셔. 사는게 다 그런 거 아녜요? 우리가 몸기니까 먹고 사는 사람 느는 거고, 우리도 그 덕에 마음이나마 편한 거죠. 다 그런 거죠 머.』

『좀 심한 줄 안다만, 한달에 얼마쯤 버는 거냐?』

『정말 이상한 손님이네. 그런 걸 왜 물어요?』

『너같이 괜찮은 여자 빼내 가려면 그 값은 주고 빼내가야 될 거 아냐. 그런 계산 좀 하려고 그래.』

『여기서 그 말에 속을 년 있을까요? 유치원에 가서 보모하면 딱 맞으시겠네요.』

『임마, 좀 봐줘라.』

계집애는 손님이 기다려서 더 있을수 없다며 나갔다. 텔리비전에선 여전히 양코배기의 싸가지 없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호기심이 들끓었지만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허스키 목소리의 여자가 간드러지게 전화를 받았다.

『미스 황 부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스 주 안 들어갔어요?』

『금방 나갔어요.』

『뭐, 미스 황을 또요?』

여자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미스 황 좀 보내줘요.』

『알았어요.』

맥주 한병을 벌컥벌컥 마셨다. 속이 시원했다. 노크소리가 나면서 계집애가 들어왔다. 피곤한 기색이었다.

미나가 얘기한대로 미녀였다. 알록달록한 치마 끝이 말려 올라가 퍽 선정적이었다.

『미스 주가 뭐 잘못했나요?』

그녀는 수건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물었다.

『아뇨. 이거 먼저 볼래요.』

나는 미나가 써준 편지를 내밀었다.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는 편지를 재빨리 읽어 내려갔다.

『그럼….』

『기다린 겁니다.』

『목욕탕으로 가세요. 옷은 벗으시구요.』

그녀는 빠른 음성으로 말하고 문꼬리를 잠그었다. 나는 옷을 입은 채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따라 들어와 수도꼭지를 열어놓았다. 물소리가 요란했다. 그녀는 바깥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었다.

『전 감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에요.』

물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지만 되도록 목청을 낮추라는 시늉이었다.

『무슨 일인지 얘길 해주세요.』

내가 재촉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얄지 모르겠네요. 우선 여기 얘기부터 하겠어요.』

그녀는 옷을 벗어 탕 밖으로 던졌다.

『만약을 모르니까 전 벗을께요.』

그녀는 여성지 선전에서나 볼 수 있는 멋진 브러지어와 팬티 차림으로 물을 몸에 뿌리고 있었다.

『여긴 위험한 곳예요. 깡패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저는 감시 당하고 있어요.』

『걱정마세요. 미나 말대로 난 자신있으니까 들어왔어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를 써야만 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한국일보 Toronto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약 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 양 장 점

셈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복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 장 의 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 태권도장
1065 St. Clair W.
전화 : 652—0000 정 영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Using Language Labolatory,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구독신청(월~토) ☎ : 533—2361

##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신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 춘 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광고문의 533—2361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한국일보 안내광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 구 인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분. 11:00 p.m~7:00 a.m(Midnight Full Time) 8:00 a.m~4:00 p.m(Sunday Only)
Rexdale×Kipling 전화 : 743-3822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현찰지불) 전화 : 533-7759 Mr. 박
지렁이 잡으러가는 지역에 좋은 농장이 많음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전화: 534-5068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는
치과에서 일하실 Receptionist구함
전화 : 233-9454, 781-9591, 535-2798

Juice Bar에서(주방)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영어 못 하셔도 관계없음
전화 : 438-0403 6시이후

Gas Attendant구함
전화 : 782-6311 (Mr. Lee)

청소하실분 구함
전화 : 630-2450 (Mr. Cho)

일본식당에서 밤에 접시닦으실 분 구함. 월.화.수(오후4시~밤11시) 오후2시지나서 전화해 주시기 바람
전화 : 421-6016 (Masuda)

입주하셔서 애기(2살반) 봐주실분 구함
(주 5일 화~토요일)
전화 : 536-5914 (9시 이후) 783-0683 (Mrs. 하)

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파트타임)
미시사가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822-4179

Store Manager 구함
월 $2,500 이상 보장. 몬트리올지역. 유학생도 가함.
전화 : 932-7775, 524-7775

꼭히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지렁이잡이에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지불함)
전화 : 656-8937 (Annagickopoulos)

지렁이 (Weston & Finch 지역)
전화 : 741-2551

남자 주방 헬퍼와 여자 웨이트레스 구함.
628 BLOOR ST. W.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톰), 531-0773(김)

1) 배우실 분
컴퓨터식자 · 사진식자 (한글타자 경험자면 더 환영)
2) 여름방학동안 Full Time 일할 학생구함.(24세 미만)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1

남·녀 캐셔나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138 Mr. 리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이틀마다 지불함. 영어로 문의 바람.
전화 : 534-8121 Dennis

입주하셔서 아기들 (4살, 1살)보아주실분 구함.
특별히 우대해 드리겠읍니다.(Jane+Weston)
전화 : 447-1460 (세시이후 연락바람)

##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 매매및 양도

Variety Store 급매. 가정사정으로 인해 급매 코저함.
Rent : $350. 리스 : 10년. 주매상 : $2,500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음. 전화 : 757-6478

자개문갑. 애기 3층장
전화 : 661-4581

컴퓨터식자기 운영으로 인해 과거에 사용하던 사진식자기(SAKEN SPICA-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533-2364 Mrs. 김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5천불+4천(티켓). Asking $29,900
렌트 $400. 6년리스. 800 sq.ft(스넥비포함)
위치 : 오샤와(Oshawa) 주인이 유럽으로 떠나기 때문에 급매 원함
Bagot Realty Inc. Realtor
전화 : 1-579-4010(B) 1-683-8154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1. 좋은자리에 새로 OPEN하는 DONUTS SHOP
현찰 $40,000 요구 리스: 20년 Rent: $2,300
아스킹 : $140,000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가게달린 빌딩 매매〉
경쟁없는 지역임. (칼레도니아 × 에그린톤)
2층에는 3베드룸 아파트와 2개의 부엌
큰 리빙룸과 큰 지하실
CASA 복덕방 Peter Chung
(B) 636-1504 (R) 635-8971
※영어로 문의하십시요

각종보석 인벤토리 SALE
세번씩 보석디자인상을 받은바있는 바루주·타바키안씨(Varouj·Tabakian)가 처음으로 Public에게 Open하며 최저가격으로 봉사할 예정임.
107 Church ST. #400
Call "Varouj(바루쥬)" 362-0507
Open Hour : 10 : 00A·M - 6 : 00P·M

CN Tower에 가까이 있는 큰 주차장 딸린 식당(Tavern)매매
좌석 : 100석이상, 아스킹 : $180,000, Call Jim 596-6706
영어에 능한분이 연락주시기 바람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성업중인 식당(Tavern)급매(L.L.B.O.있음)
리스: 18년, 주매상: $10,000이상,
좌석: 150(1층), 218(Banquet Hall)
아스킹 프라이스: $300,000 (Cash일 경우 $250,000)
Downpayment : $150,000 이상 요구
위치: Birchmount와 남쪽 Eglinton 전화 : 222-7494
(12:00-2:00의 점심시간은 피해서 해주실 것)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몬트리얼에 있는 맥주와 포도주도 파는 그로서리 스토어
년 매상 : $235,000 아스킹 : $39,000+스타
전화 : 1-514-932-6046(Mr.Kim)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콘도미니움 2BedRoom 세놓음(월 $500)
5월1일 입주가능. Islington×F inch
전화 : 745-4347

PIZZA STORE 매매 (London, Ont.)
주매상 : $2,000이상,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까지
전화 : 1-519-681-7631(B) 오후 4시이후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 +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좋은 위치에 모든 라이센스 갖추고 있는 식당급매
좌석 : 180 (Banquet Room은 따로 있음)
주매상 : $10,000~$12,000. 렌트 : $850(Mon.)
Owner will take back mortgage.
Asking : $250,000
Call Joe. 787-0491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Tuck Shop) 전화 : 842-2917

세탁소 팝니다. 그리고, Shoe Repair, Lottery Tickets, Rug Cleanig and Laundry
461044 Ontario Ltd. 전화 : 595-1570

좋은 위치에 있는 조그만 가게 Lease를 팝니다.
Smoke Shop이나 Dry Cleaning Depot. 하기에 적당함.
혼자서 하기에 알맞음. 아스킹: $3,100 전화: 431-1358

일손이 모자라는 관계로 이윤좋은 과일및 꽃가게를 급매. 주일은 휴업이고 6일 주매상 현재 $4,000~$4,500. 계속 주매상이 오르고 있으며 장비값만 $50,000이상임. 아스킹 : $48,000. 관심있으신분은 O·K오토바디 김회삼에게 연락 주세요.(Carlaw×Gerrard)
전화 : 251-9889(B) 242-4551(R)

★바쁜 쇼핑·몰안의 Food Store
★3개의 상점과 2개의 3BedRoom Apts와 3개의 (BedRoom Apts가 있는 2층 빌딩
Queen St. W. 에위치(Dennis or Sam)
전화 : 534-3089 or 466-9609

가정 형편상 급매
2층에 3베드룸과 뒷뜰에는 넓은 정원이 있읍니다. 가게달린 건물임.
$15,000 다운페이.
전화 : 242-3873 Miss. 오

##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렌트 위치:20 Mobile Dr(한인회관) 크기:1)3,6m×3,8m 2)2,6m×4,4m 위의 방이 같이열에 위치해서 있으며 함께 또는 각기 임대 할수도 있음. 전화 : 755-9288

단독 또는 공동으로 렌트 하실분
Young St.(로렌스×욕·밀 중간지점)
전화 : 481-3677 Frank

가게 팝니다.
전화 : 656-5358(저녁 8시이후)

## 하우스 렌트

집 독채 세놓읍니다.
방4개. 지하실 꾸며져 있음.(세파드+파머시)
전화 : 757-6334

방세놓읍니다.
●다운타운지역 (Church × Dundas)
●St.Clair × Weston 전화 : 763-3289

1 BedRoom & 2 BedRoom Apt.
College & Ossington Area.
$350-$450(M) 전화 : 531-6183

##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 성)
전화:633-7892(R)497-8900(B)

##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윈치)
전화 : 223-7884 Mrs. Lee

##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2R1 전화 : 759-9505 (5시이후)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482-0166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 한국일보 안내광고 *